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허물은
이제 서서히 그 자취를 잃어갈 것이다.

공직에 첫 발걸음을 떼었던 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문구가,
흐릿함에서 다시 선명한 빛을 띠며
가슴 벅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필 분야 대상 수상 작품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中 —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도 않는다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도 돌아서 간다

평생을 제 키보다 긴 팔로
나무를 안으며 돌부리를 다듬으며 물고기를 부르고
새들의 발을 씻어준다

은 몸으로 대지를 적신다

바다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 시 분야 대상 수상작품 “물에 관한 명상” 中 —

21세기 금도끼, 은도끼 청렴주인공



발간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경험한 청렴과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청렴·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모하였습니다.

청렴이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직장인, 주부, 공직자 등 각계각층에서 역대 최대인 2,570편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청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반부패 정책을 주도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우리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부패·공의 신고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청렴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는 4년 연속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61점, 33위)을 기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청렴한 사회,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안내해주는 이정표이자 등불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집에는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분야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50편의 작품을 수록하였습니다.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작품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CONTENTS

심사평

- 06 수필 분야 | 김현탁 | 한국현대문화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 08 시 분야 | 이승하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10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분야 | 박귀재 | ㈜백암아트홀 대표이사

수필

- 14 대상 |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 20 최우수상 | 수박이 너무 달아서
- 26 최우수상 | 청렴과 결백의 전이
- 32 우수상 | 라떼의 전설 :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
- 38 우수상 |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을 묻히라!
- 44 우수상 | 이름없는 가방
- 50 장려상 | 커피 한잔
- 54 장려상 | 명예, 그리고 보람
- 60 장려상 | 데일리(Daily) 청렴
- 66 장려상 | 양심 내시경

시

- 74 대상 | 물에 관한 명상
- 76 최우수상 | 반딧불이
- 78 최우수상 | 지붕론
- 82 우수상 | 하늘 청소부
- 84 우수상 | 비누를 위하여
- 86 우수상 | 유리 천장
- 88 장려상 | 물망초(부제: 나를 잊지 말아주오)
- 90 장려상 | 당신이 모르는 당신
- 94 장려상 | 우물
- 96 장려상 | 이름꾼

웹툰·포스터·일러스트

- 100 대상 | 올바른 마음
- 120 최우수상 | 연줄을 끊으세요.
- 122 최우수상 | 일급수달
- 134 우수상 | 당신이 버려야만 하는 것
- 136 우수상 | 반드시 온다
- 148 우수상 | 당신의 푸른 마음으로
- 162 장려상 | 나의 선물
- 178 장려상 |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 180 장려상 | 골목길
- 200 장려상 |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영상

- 204 대상 | 선배님이 수상해요
- 206 최우수상 | 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206 최우수상 | 오피스 청렴
- 206 우수상 | 청렴도시
- 206 우수상 | 선인장
- 206 우수상 | 청렴의 시각으로 보는 속담의 재해석
- 207 장려상 | 청렴한세상 우리가 만듭니다
- 207 장려상 | 청렴도
- 207 장려상 | 청렴을 외치다
- 207 장려상 | 청렴몰래카메라

노래

- 210 대상 | 내 마음속의 cctv
- 212 최우수상 | 달라질까?
- 212 최우수상 | CLEAN DAY
- 212 우수상 | 청렴 백신
- 212 우수상 |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 212 우수상 |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
- 213 장려상 | We can make Love
- 213 장려상 | No Thanks
- 213 장려상 | 이해충돌방지송
- 213 장려상 | break

심사평(수필 분야)

한국현대문화연구소 소장

김현탁

최근 들어서 정치권을 비롯해 부정한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에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다. 각종매체와 교육을 통해서 국민은 물론, 공직자에게 청렴을 요구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나 물질을 획득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불식시키고자 매년 청렴 연수원에서 말 그대로 청렴을 강조하며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정의 씨앗들을 근본적으로 싹트지 않게 하기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열고 의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금년에도 많은 응모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동들을 공직자와 공직을 퇴임한 자, 또 일반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들을 통해 의식개혁에 앞장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응모한 국민들처럼 청렴에 대해 앞장서서 실천 한다면 이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다

수필작품을 쓰는 방법에는 이론적인 정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자기 고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고백적 작품은 단순히 '나의 것'을 기록으로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비유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응모작이 단순한 이론적 나열이나 해설식의 표현, 또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연들을 무의미하게 서술한 작품이 많아 아쉬웠다.

하지만 대상으로 뽑힌 작품과 수상에 오른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유와 사연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내용의 진지성이 피부에 와 닿아 평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문학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은 감동을 주기위해 그 표현 방법이 어떻게 변별되느냐가 관건이다.

해마다 실시하는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관례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흑어, 마음에 부정한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수상작품을 보면서 인식의 대 변혁을 가져오는 일깨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심사평(시 분야)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이승하

코로나사태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 응모작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국민 각자 은둔자가 되어 명상하고 고뇌하고 창작하는 이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수준도 높아졌다. 예년 입상작들을 보고 참고한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꽤나 애매한 시 쓰기임에 틀림없다. 청렴에 대한 수필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펼치거나 사례를 들려주면 되겠지만 시는 공모전의 주제가 적합한가, 독창성이 있는가, 완성도가 높은가, 활용도가 있는가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시로서의 작품성이 있는가와 청렴콘텐츠임을 숙지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로서는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었지만 청렴과 거리가 멀어 밀려나거나 청렴을 다루기는 했지만 문학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었다.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학적 향기를 짙게 풍기는 작품들이 입상권에 들었다.

5명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합산하였고, 상위 20편에 대한 난상토론이 2시간이나 이어졌다. 입상권에 든 작품을 일일이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편편의 작품을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 결과 10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지봉론」은 몇 군데 거친 표현이 있긴 했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참신하여 눈길을 끌었다. 청렴이라는 주제

가 조금만 더 부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딧불이」는 비유의 대상을 잘 가져왔으며 조금 투박하지만 시적 이미지와 견지하는 힘이 느껴진다. 하지만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강박관념이 마무리 처리를 다소 어색하게 하였다. 아깝다.

대상으로 뽑은 「물에 관한 명상」은 제목이 시사하듯 자연스러운 전개가 가독력을 높였다. 시가 특별히 뛰어나다기보다는 흠이 별로 눈에 안 띄었다. 안 좋게 말하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를 살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별히 내가 주장을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소리대로 사는 것, 간섭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는 저 물의 성정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것이 곧 청렴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제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5명 심사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여타 작품 중 이 작품을 뛰어넘는 것이 없었기에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리라.

심사평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분야)

(주) 백암아트홀 대표이사

박귀재

‘청렴’은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의 척도이자 지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전반에 청탁과 뇌물, 부정 부패, 그리고 갑질이 횡행하고 “너무 청렴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내로남불’이라는 망국의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 되었으며 심지어 ‘김영란법’이라는 법까지 제정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인 저 역시 이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며 겹겹히 반성하고 자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로부터 청렴은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기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산 선생의 청렴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공직사회와 민간 사회에서 청렴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2020년에 비해 응모작품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웹툰과 포스터 일러스트 분야에 총 331 작품이 접수되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사회적 기대심리가 서서히 증폭되는 계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심과 사회적 기대심리가 서서히 증폭되는 계기로 믿어 의심

치 않습니다.

응모작이 많아 심사는 다소 어려웠지만 4명의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의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로 코로나 시국을 감안한 1차 온라인 예선에서 총 41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국민참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1차 심사 통과작을 대상으로 1주일간 표절신고 접수를 받아 표절 여부를 확정하였으며 화상회의 형식의 2차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작품을 영광의 수상작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표절 신고 과정에서 청렴콘텐츠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응모작이 타 공모전의 수상작이나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한 표절로 최종적으로 판명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대다수의 작품들은 고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정과 청탁, 부당 대우와 집단 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설득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희망적으로 고양하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의 취지에 적합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41개 작품들은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고 주제 전달을 위한 정교한 구성, 그리고 우수한 표현력과 향상된 완성도로 설득 메시지를 구사하였기에 참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제의 반영과 교육 적합성, 창의성, 표현의 완성도, 대중성 등 다각적인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공모전의 취지에 적합한 수상작들을 엄선하였기에 수상작들은 향후 대중에게 공개되어 청렴문화를 파급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청렴’은 시대를 이끄는 절대 가치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청렴한 사회에서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가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돌이 인내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응모자들의 올곧은 생각과 노력으로 인해 청렴 문화가 정착되어 더욱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우리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가까워져서 우리 모두 함께 ‘청렴 문화’를 꽃피우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1

수필분야

대상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최우수상

수박이 너무 달아서
칭럼과 결백의 전이

우수상

라떼의 전설 :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을 묻히려!
이름없는 가방

장려상

커피 한잔
명예, 그리고 보람
데일리(Daily) 칭럼
양심 내시경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홍유기

“강자에게 약하지 말고 약자에게 강하지 말자”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꼭 지키고 싶은 문구였다. 하지만 실천하기의 어려움은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 관계, 주변 상황을 모두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도 어언 8년 차, 공직생활이라는 바다에서 그 결심의 배는 비교적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부담이었지만,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격변기에 마주하는 민원인과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대치(對峙)는 그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급기야 거센 풍파가 내 잔잔했던 항해의 경로를 방해하려 하였다.

2020년이 끝날 무렵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고성이 울렸다. 종종 있었던 일이라 곧 잠잠해지겠지 하며 대수롭게는 여기지 않았다. 발급을 담당하시는 주임님이 황급히 나에게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아버지(신고인)의 부동산을 아들(취득자)이 취득하려는 것이었는데 서류가 부족한 것이었다. 법에서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매매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증명용으로 제출받는 서류는 국세청 소득자료인데 그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고지서 발급을 무리하게 요청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창구 쪽으로 다가가 신고인에게 규정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그럴 틈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신이 판사야? 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야!”

사무실의 전 직원이 들을 만큼 고함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에 난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다. 팀장님도 나오셔서 민원인을 상담테이블로 안내 후 차분하게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나 신고인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엄포를 내놓으며 서류를 탁상 위에 크게 내리쳤다. 다른 민원도 밀려오는 상황에서 계속 이 건에 대해 매달릴 수도 없었던 차였으나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 고지서를 발급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다. 관련된 규정을 출력하여 제시해 주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관청을 뒤로한 채 신고인인 취득자의 아버지는 떠났다. 그렇게 그 일은 끝난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주가 지났다.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로 올라오던 차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신고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해서 재차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매매가 아닌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소득증명에 대한 중요서류가 여전히 없기 때문이었다. 완전히 서류를 갖추면 취득신고를 받겠다는 말을 건넸지만, 신고인은 몇 달 뒤에 꼭 제출 하겠다고 취득세 고지서가 급하니 얼른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었다. 공무원으로서 법에 따른 업무처리와 민원발생 방지의 이중고(二重苦)에서 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도 그 난리를 쳤는데, 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소리를 칠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방문했는데 신고를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 괜히 큰소리가 나면 내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창피당할 수 있으니 일단 처리하고 서류는 몇 달 뒤에 받으면 그만이지”

몇 달 뒤에 중요서류를 보완 받겠다는 구두약정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하고야 말았다. 신고인의 언행을 보았을 때 서류를 제대로 보완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더 큰 민원으로 번지기 전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혹여 서류를 추후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원 같은 조사기관의 눈만 피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는 안일함이 점점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게 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분을 잊고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의 길로 택한 것이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평소처럼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 고지서 발급 건이었다. 분명 증여거래로 심증은 가는데 신고인의 강한 언행으로 담당자인 내가 움츠러들어 고지서를 발급했다는 자책감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잠깐의 생각이 겹치며 곧 잊힐 거라 여기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그날의 기억들이 남아있었다. 과연 정반대의 민원인이었다면 세무공무원으로서 나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을 텐데, 괜히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계속 나의 양심을 시험했다. 결정적으로 세금을 내려 몇 시간을 관청까지 달려와 주신 어르신

의 말씀이 바로 내 양심의 경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나는 세금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꼭 주무관님이 세금 내게 해주세요. 주무관님 믿고 이 세금 낼게요”

무언가 가슴에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세무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는 세무담당자로서의 나를 다짐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고 그 취득 신고 건에 대해 다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하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곁에서 이끌어주신 팀장님의 격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탱해준 큰 원천이 되었다. 난 혼자만 아니었던 것이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적정하게 과세하고 조세정의의를 지키고자 함은 잘못된 것이 없다.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니,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

무작정 매매거래를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다주택자에 관한 법령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유관기관의 법 자문과 의견은 물론이고 관련된 판례, 해석, 지침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됨이 밝혀진 것이다. 최초에 신고·납부한 것은 과소신고·납부로서 누락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누락세금을 추징해야 할 일만 남았다.

시간을 지체할 것도 없이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신고인과 세무대리인은 통지서를 받자마자 격분하여 나를 찾아와 당장 철회하라고 협박을 하였다. 만일 과세관청이 패한다면 담당자인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이다. 거기다 위원회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니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고 회유까지 한 것이다. 순간 마음이 불편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 “공직생활의 흠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강한 압박감이 생겼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라는 조세정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믿고 흔들린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내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인 측은 관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팀장님으로부터 감사과에서 나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접한 것이다. 순간 일주일 전 나의 결정이 신고인 측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청을 빠져 나가며 세무대리인이 신고인에게 작은 소리로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걱정 마세요. 감사원과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수 있겠어요?” 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말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가 없다. 감사과에서 전달된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신고인 측에 전달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하여도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팀장님과 주위의 동료들도 이 사안은 문제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팀장님께서 법에 맞는 처리절차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달래주셨지만 처음 겪는 이 상황에 한동안 말을 잃고 모니터만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명 나를 압박하여 이 사안을 위원회에 전달되기 전에 철회하려는 심산이 분명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나 자체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도와주셨던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난 철저히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 측에 유선으로 안내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불복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신고인 측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는지, 급기야 불복을 제기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서로 간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대편 측은 세무대리인, 우리 측은 담당자인 내가 참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발언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긴장이 풀렸는지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살면서 수없이 들었지만, 이 사안은 꼭 결과까지 가져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손해배상”이라는 두려움이 아닌 “공정과세”를 하겠다는 나의 다짐을 위해...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되었다. 이 문서를 열어보기 전 긴장감과 떨림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수년 만에 느껴보는 복잡미묘한 감정이었다. “합격”을 바랐던 지난날의 기억처럼 “관청의 승소”라는 또 다른 합격을 난 6개월 전부터 빌고 또 빌어오고 있었다. 문서를 열자마자 난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다 끝났다.” 상대 측과의 다툼도, 세금을 내려 멀리까지 오신 어르신과의 약속도, 끝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도... 난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

었다. “신고인의 의견 불채택”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본다. ‘세무공무원으로서 내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의라는 것은 검찰, 경찰,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떠올려지는 그런 단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완전하진 않지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스해진다. 말은 직무에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과세행정에 공정함을 더한다면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평과세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흔적들을 떠올렸다. 평소 민원인이 큰소리를 내면 심정적으로 두렵고 팬한 민원이 발생하면 인사상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돼 당당하게 응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익숙해져 힘이 없고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법령에 맞으니 내라는 강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큰소리를 내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 앞에선 조용히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소극적인 모습의 나를 말이다.

납세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제가 낸 세금 잘 쓰이나요?’, ‘저만 이렇게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세금은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거두고, 없는 사람한테만 거두나 봐요?’ 그런 물음표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순간순간을 넘어갔던 안일함은 이제 느낌표로 다시 채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허물은 이제 서서히 그 자취를 잃어갈 것이다. 공직에 첫 발걸음을 떼었던 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문구가, 흐릿함에서 다시 선명한 빛을 띠며 가슴 벅찬 향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박이 너무 달아서

정민영

칠월의 여름, 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빛을 정통으로 맞으며 야채가게 여주인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있었다. 땀이 코와 볼에 맺히고 목에는 머리카락이 들러붙었으며 등에 난 땀으로 윗옷의 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허벅지가 달라붙는 숨 막히는 여름의 땀별더위였지만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의 지폐 바퀴치기에 당해 내 돈 오만 원을 순식간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이 가게에 온 것을 이미 여러 번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삼십분 전 나는 분명 지갑에서 노란색의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서 오른쪽 골목에서 가게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가게주인은 가게 밖에서 있다가 돈을 먼저 받아 허리에 차고 있던 까만색 전대 속에 넣었다. 만 원짜리가 필요했던 나는 오만 원을 내고 평소 사던 대로 샤프샤프용 야채 몇 천원어치만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겠다고 생각까지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야채를 다 고르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대뜸 가게 주인이 자신은 오천 원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아침에 계획해서 넣은 오만 원을 빼낸 지갑은 비어있는데 오천 원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우연히 한 번 야채를 구입한 뒤에는 꼭 여기에서만 샀었다. 야채가 정말 싱싱하고 양도 많이 줬기 때문이다. 상추 이천원 어치를 사면 딱 찬 검은색 비닐봉투가 두 봉지였다. 동생도 일부러 이쪽으로 심부름을 보냈었고 나도 일주일에 한번은 다녀갔기 때문에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게 주인의 뻔뻔함에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 겪는 일어서 대응방법이 조금도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자기가 장사를 몇 년이나 했는지 아니면서 자기는 받은 돈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저도 기억력 좋아요. 제가 분명히 오만 원 냈어요. 내가 어느 쪽에서 가게로 들어왔고 어떻게 돈을 내었으며 가게 주인이 전대에 돈을 넣은 모습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아니라고 한다. 제가 진짜 냈다니까요. 내 말을 튕겨 내기라도 하듯 손을 허공에 두어 번 짓는다. 이 와중에 좁은 가게에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나는 입구에서 조금 자리를 옮겨 서있고 가게주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야채를 팔고 있다.

cctv를 보자고 하니 어이없게도 없다고 했다. 주변을 보니 골목이 좁아서 가게 입구가 찍힌 cctv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반대편에 있는 정육점으로 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마침 정육점에는 컬러 cctv가 3대나 있었고 길이 좁아 녹화범위 안에 야채 가게가 있었다. 사장님은 더운데 고생한다며 물을 주셨고 정육점 사장님 부부와 나는 cctv를 둘러보았다. 잠시 후 화면 속에는 약 한 시간 전의 땀에 젖지 않은 내가 등장했다. 그래 내 기억이 맞았다. 나는 가게에 오자마자 지갑을 열어 가게 주인에게

지폐를 건네주려고 하고 있다. 이제 지폐의 색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인지 야채가게에서 쳐놓은 천막의 귀퉁이에 정확하게 내 손이 가려져 내가 주인에게 준 지폐가 보이지 않았다. 아..! 하는 탄식이 동시에 나왔다. 정말 조금만 옆으로 아니면 조금만 앞으로 나와 있었더라면. 내 표정을 본 정육점 사장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경찰이 와도 못 찾는다고 하셨다. 잊어버리라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며 종종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웬만하면 카드가 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무 허탈했다. 나는 쓰러지고 싶은 무력감을 이기며 정육점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야채가게로 갔다.

다시 온 나를 야채가게 여주인은 본체만체 결눈질로 볼 뿐이었다.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냥 마트로 갈 걸 여기 야채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괜히 시장으로 와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 사람들도 참 멍청하다. 이렇게 해서 손님을 잃으면 알 낳는 거위를 갈라버린 꼴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야채가게 주인의 남편이 자전거를 세우고 온다. 헬멧도 벗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한다. 그냥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가 시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나이도 먹고 요즘은 깜빡깜빡 한다고. 그래도 평생 남의 돈 욕심 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난다고하면 나중에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야채가게 여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픈 사람처럼 앉아있다. 듣자하니 성질이 더 난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아저씨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그거랑 제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받아야 된단니까요. 소용이 없다. 이제 아픈 사람은 내가 될 판이다.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범벅이 되었다. 그래 그만 하자. 어느 덧 머리 위의 해는 옆으로 비껴있다. 나는 지갑에서 공무원증을 꺼내어서 가게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저 공무원이에요. 저 기억력도 좋고 진짜 거짓말 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야채가 좋아서 일부터 여기 다니는데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예요. 돈은 돌려받았다고 생각할게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은 사람이어서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질은 인정하고 다시 가게를 찾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게 주인도 양심에 조금의 가책

은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게를 나와서 내가 왔던 골목으로 걸어갔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 하던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햇빛 아래 오래 서있었던 것도 지치고 지금 시대에도 우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어지러웠다. 오만 원은 나에게 정말 큰돈이었기 때문에 속이 뒹다. 지금까지 야채가게에서 덤으로 얻은 것을 다 합해도 오만 원이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얼굴의 땀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휴지를 찾기 위해 가방에 손을 쑥 넣은 순간. 부정하고 싶은 감촉이 느껴졌다. 돈이었다. 내 지갑 모양대로 접힌 오만 원이었다.

이제야 몰릴 듯이 생각이 차올랐다. 나는 골목을 들어오며 잔돈을 받을 생각에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놓았다가 골목 중간에서는 급한 일이 아니니 다음 주에 천천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채가게에 야채를 사면 딱 떨어지는 오천 원을 낸 것이다. 청경채 2,000원, 알배추 2,000원, 버섯 1,000원. 총 5천원. 나는 골목을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엄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늦기 전에 얼른 가서 사과드리라고 하셨다.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러나 정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막 웃던 친구도 가서 사과 해야지 어찌겠냐고 했다. 나는 아파트를 나와 길 건너 약국에 들러 비타민 음료를 한 상자를 샀다. 가게에 도착하니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 주인 부부가 계셨다. 부채질을 연신 하시면서 반찬 두서너 가지에 밥을 드시고 계셨다. 내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멈칫 하셨고 나는 가게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한테 오만 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주인 부부는 밥을 드시다 말고 나오셔서 연신 고맙다며 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맙다고 잘했다고 웃으셨고 내가 내미는 비타민 음료를 보시고는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괜찮다고 와줘서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사브사브용 야채 사러 온 거 안다고 온 김에 더 가져가라고 이것저것 가방에 막 넣어주셨다. 아니예요 괜찮아요. 나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입술을 세계 물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는 그물에 담긴 작은 수박도 하나 들려있었다. 가져가서 동생이랑 먹고 그리고 꼭 또 오라고. 야채 가게에서 인사를 마친 나는 이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정육점으로 갔다. 정육점 사장님께 오만 원은 나한테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이야기를 듣는 정육점 사장

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집으로 가서 씻고나와 동생이랑 수박을 갈라보니 아주 새빨갭게 잘 익은 수박이었다. 갑자기 웬 수박이냐고 물어보는 동생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시장에 있는 야채가게 갔다 왔거든. 야, 근데 난 살면서 내가 제일.....여기까지 밖에 말하지 못하고 수박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수박이 너무 달아서 또 눈물이 났다.

청렴과 결백의 전이

김화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 좁은 골목에서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와 내 자동차가 교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자동차와 손수레가 바짝 붙다보니 내 차가 손수레를 슬쩍 밀치고 말았다. 그러자 수레를 끌던 할아버지가 기우뚱하더니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께 다가가 다치지 않았냐고 물으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있었다.

“내가 더 바깥쪽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리어카가 자동차 옆으로 다가가서 그랬나 봐요. 자동차는 상하지 않았어요?”

순간 말문이 막혀 할아버지를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못 사람들에 치이다보니 잘잘못을 떠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듯했다. 거기다가 대개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노려 목부터 잡으며 업살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또 내일이면 피해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자동차를 골목에 주차시키고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고 댁까지 함께 갔다. 할아버지는 흔히 별집이라고 불리는 쪽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이었다. 방 한 칸에 조그만 부엌이 한 개였다. 라면만 먹고 살았는지 부뚜막에는 찢어진 라면 봉지가 널려있었다. 냉장고가 있어 열어봤더니 달걀 고추장이 담긴 통 하나만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냉장고에 넣을 것도 없고 전기세가 아까워 코드를 빼놨다며 멋쩍어했다. 매스컴에서 150만의 독거노인의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니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들를 테니 아픈 곳이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당부에 할아버지께서는 올 것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쌀과 김치를 챙겼다. 그리고 남편이 입던 옷 중 유행이 지난 깨끗한 옷을 보자기에 싸다. 오늘 만난 할아버지의 부엌 모습이 떠올랐고 입은 옷이 남루했기 때문이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흔히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원인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고 낭비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박스를 주우며 별집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는 나이롱환자라는 핏수를 쓰지 않았다. 일하기도 어렵고 돈벌이도 쉽지 않은데 사고를 핑계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편히 지내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치

지 않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양심을 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정과의 결탁을 과감히 뿌리친 것이다.

이튿날 나는 쌀 한 포대와 김치와 옷가지를 챙겨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더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 그래도 나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 물었다.

“몸은 괜찮으니 이젠 올 것 없어요.”

그만 오라고 손사래 치는 할아버지께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내놓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지내자고 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하다 보니 아주머니들이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한 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후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말자고 우리들 스스로 결의를 한 때가 있었다.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면 어르신들께 나눠줘야 할 음식을 아끼게 됩니다. 남겨서 집으로 가져갈 욕심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없으니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한두 사람이 음식을 남겨서 집으로 싸가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그리했다. 그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으나 나는 반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어른들이 실컷 잡수시도록 충분히 배식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그 음식을 나도 한 봉지 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홀로 살던 독거노인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조금만 싸다 드리면 맛있게 잡수실 텐데.....’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나는 남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리 남은 음식이라도 그것은 사물이 아닌 엄연히 공물이었다. 공물을 사적으로 취하면 이는 부정인 것이다.

며칠 후 나는 김치를 담가 꾸린 후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부뚜막에 널려있던 라면봉지가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흔히 우리는 라면을 끓이면 김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찬도 없이 라면만 드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별일 없으셨죠?”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께서는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5만 원짜리 돈 2장을 내게 내미셨다.

“얼마 전 아주머니께서 가져다준 옷 속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마 남편께서 몰래 비상금으로 감쳐두었던 돈이었는데 찾지 못했던가 봐요.”

순간 그 분이 내민 돈을 받아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였다. 그렇다고 청렴과 결백의 돈 10만원을 할

할아버지께 그냥 쓰시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 그 분의 진실에 먹칠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양심의 돈 10만원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속옷을 샀다. 이 세상에 나눠쓰고, 바꿔 쓰고, 물려줘도, 속옷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속옷을 사들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자니 왠지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이거 사장님 돈을 횡령한 죄로 우리 둘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속옷을 받아든 할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맺은 인연으로 나는 그 분에게서 청렴과 결백에 이어 정직까지 배우고 있다.

“올 생신 때는 저희들이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딸과 사위가 내 생일을 챙긴다며 우리 집 앞에 자동차를 대기시켰다. 나와 애들은 자동차를 타고 음식점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붕 떠 자동차 천장을 들이받았다.

“어이구.”

자동차가 서고 우리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자동차 4대가 연쇄추돌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손으로 고개를 받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고개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했으나 손으로 머리를 고일정도는 아니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운전자들끼리 옥신각신 했으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회사가 출동해 쌍방과실로 해결되었으나 아픈 사람이 문제였다.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회사로 연락을 주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다. 점심을 먹고 집에 도착한 사위는 내 걱정을 했다.

“어머님, 병원에 입원을 하시죠. 그래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위의 말에 내가 한마디를 했다.

“별로 다친 곳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이 사람아,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해.”

나의 단호한 어조에 사위는 멈칫했다.

“이번 사고로 자네 부부가 하는 일에는 내가 간섭을 안 하겠지만 나는 별로 다친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병원에서 검사만 하고 이상이 없으면 끝내겠네.”

나는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보니 몸 어느 곳에도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상 없음을 통보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어르신이군요.”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때로는 칭찬을 듣는 때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구태여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사고 났으면 입원이라는 등식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다음 수순은 밀고 당기며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 합의에는 돈이 매개체로 등장하니 우리 사회의 부조리 중 하나이다.

나는 박스를 주워 근근이 살아가는 어른한테 사회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과 결백을 배웠다.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돈을 뜯어내면 몇 년 고물을 줍는 것보다 훨씬 나올 수 있다. 내가 물려준 옷 속에 들었던 돈 10만원은 아무도 모르는 돈이다. 그 돈 10만원이면 그깟 박스 줍는 것보다 몇 배는 남는 장사이다. 그런데도 청렴과 결백으로 양심껏 살고 있으니 내가 그 분을 보고 배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청렴과 결백이 곳곳의 사람들에 전이되어 사회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떼의 전설 :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

석낙완

한 중년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끌려온다.

“너 여기에 앉아” 형사가 말한다.

남자는 화난 표정으로 “너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앉아 마” 형사가 남자의 뒤통수를 때린다.

이때 그 남자는 갑자기 수갑을 찬 손으로 신참 형사의 뺨을 힘껏 후려치며

“그그 서장 어딴어? 강서장 대포와아....내 누군지 아나? 으이~! 내가 이새까, 그그 서장이랑 임마야 그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그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먹고, 으! 싸우나도 같이 가고, 마아, 개이 새까 마 다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개새끼어들”

이 대사는“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영화의 한 부분이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비리, 유착, 갑질, 양심, 양심, 정의, 청렴과 같은 낱말들 말이다.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너무 이른 시기에 위에서 열거한 단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군복을 입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았다. 상담원이 물었다. “어느 직렬의 공무원을 준비하세요.” “네! 건축직 공무원인데요.” “아! 그래요”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상담을 마치고 문을 막 나서는데 아저씨 한 분이 큰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건축직 공무원 좋지! 권한도 크고 생기는 것도 많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난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미소만 짓고 나왔다. 그런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꼬박 일 년 반을 공부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다. 내가 발령받은 지역은 소문난 달동네였다. 발령장을 받고 구청 건축과에 인사하러 갔다. 상견례가 끝나자 우리 동을 담당하고 있는 선배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 동네가 우리 구에서 가장 힘든 곳이야! 고생이 많을 거야!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가장 비굴해지고, 받지 않으면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격려해주었다. 그 선배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 말이 근무하는 내내 나를 지켜주었다.

나의 업무는 소규모 건축신고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불법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장해보니 오십 대 중년 남자가 인부들과 함께 옥상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증축하고 있었다. “저는 동사무소 건축 담당입니다.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건축 담당이구먼! 안녕 하쇼! 나 김○○사장이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새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나의 경고에도 너무나 여유 있게 인사를 건네는 그가 참으로 의아했다. 내가 재차 경고하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알았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철거가 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나를 뻘히 쳐다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이윽고 나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 뜻밖에도 계장님이었다. 그만하면 됐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사무 실에 들어왔다. 계장님은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잘 될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야근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동사무소 아래 고깃집으로 나를 불렀다. 그 자리에는 얼마 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장에서 만난 그 사장이 있었다. “여기 앉아 이 사장님 알지 지난번 일로 미안하다고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난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상급자의 지시라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 현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무허가는 반듯하게 건축되어 주택으로 이용 중이었다. 난 순간 고민했다. 다시 단속할까? 그런데 그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한없이 부끄럽고 비굴해졌다. 구청 선배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내가 단속하면 계장님이나 몇몇 선임자들이 나를 불러 회유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사업자가 현금 봉투를 내민 적도 있었고,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며, 심지어 책상 서랍에 돈 봉투를 놓고 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난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철거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몸싸움도 불사했다. 어느덧 나는 동네에서 보안관으로 소문이 났다. 그들은 나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결재를 올렸는데 계장님이 결재해주지 않았다. “계장님 결재해주세요. 급한 겁니다.” 그러나 계장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런 식으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결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나는 계장님이 왜 그런지 알고 있었다. “계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도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계장님도 당황했다. 다음날 계장님은 어찌할 수 없 다는 뜻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결재를 해주었다. 나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는 한층 더 당당한 공무원이 되

어가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때에는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구의원의 지역구였다. 그 의원은 특하면 나를 불러 훈계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나를 불렀다. 구의원은 위반 건축물이 크지도 않고 생계형인데 봐주라고 했다. 매년 이런 식이었다. 난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의원님 지금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주민들의 표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의원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러면 곤란한데 다음에 보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청 인사계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나 인사계장인데 당신 아직 시 보라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끈으면 부러지는 법이야 갈대처럼 유연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의원님을 많이 도와드리라고 협박성 당부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구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청장이 되었고, 인사계장은 곧바로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상가 여러 채가 헐렸다. 문제는 철거한 후 남은 부분이 거의 무허가 건물이었다. 건축주들은 건물 일부를 살리기 위해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나는 공사 중단 명령을 했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를 압박했다. 결국 민원이 시 본청으로 들어갔고, 감사실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 감사관은 공무원이 불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혹시 돈을 받고 봐준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난 억울하고 분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감사관에게 말했다. 그는 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소신껏 일하고 있는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약속대로 나를 징계하지 않았다. 다만,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 등 처분지시만 했을 뿐이었다. 나의 진심을 믿어주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이다.

첫 발령 받은 초급 공무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친 일이었다. 나의 민원 대응이 서툴고, 거칠며 세련되지 못했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별나게 군다고 수군댈 때는 공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사표를 쓸까 고민도 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냥 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모두 편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 나도 힘들고 지칠 때 그저 편하게 살까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난 불

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길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여전히 24년째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때는 왜 청렴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청렴은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당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토대는 법과 제도이며 이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당당한 공무원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다. 팀원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 팀원들은 놀라워하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내가 경험한 일들은 ‘라떼의 전설’이 되어야 한다. 진정 철 지난 전설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통해 더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한 공무원들의 전성시대’가 멋지게 펼쳐지기를 마음껏 기대해 본다.

“느그 서장 어딴어! 강 서장 대포와야....? 내 누군지 아냐? 으이~! 내가 이 새까, 느그 서장이랑 임마야. 밥묵고, 으! 싸우나도 같이 가고 으! 마아, 개이 새까 마 다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때 신참 형사는 그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이 놈이 어디서 뺨치고 있어 우리 서장님이 너하고 뭘 했다고 웃기고 있네! 이놈아 요즘 그런 공무원이 어딴어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을 묻히랴!

홍정식

목민심서의 한 구절이다. 밤이 이슬하여 누군가가 고을 현감의 문을 두드렸다. 이 밤에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열자 좋은 자리를 원하는 자가 금 열 돈을 가슴에서 꺼내며 자리를 탐하였다. 청탁하는 자가 말했다.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므로 현감은 “하늘이 알고 신(神)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하니, 청탁하는 자가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1987년이였다. 아버지는 내가 해군 장교가 되기를 원했다. 해병대 병장으로 군대를 마쳤는데 장교들의 지휘 통솔과 지도력이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다. 백령도의 푸른 바다와 젊은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장차 멋진 해병 장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서 공부도 체력단련도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 삼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되면 빨리 밥을 먹고는 혼자 운동장을 달리고 철봉에 매달렸다. 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체력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 몸을 키우고 턱걸이를 연습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시력이 늘 고민이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양안 0.7의 시력이 사관학교의 합격 기준이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했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다. 그때의 나는 0.3 정도의 시력을 보였다. 국어와 영어, 수학, 역사 그리고 윤리 시험이 1차였으므로 우선 1차 시험에 매진했다. 다행히 1차 시험은 합격증을 받았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꼭 본인이 합격한 것처럼 보였다. 안타깝게도 신체 검사일이 점점 다가왔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다가 동네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표를 노트에 적어와 외웠다. 비행기, 나비, 새, 자동차를 외우고 동그란 원의 구멍이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나열된 숫자를 순서대로 다 외웠다. 그만큼 가고 싶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빠졌다. 아버지도 나의 신체에 대해 알고 계셨고 시력 문제가 합격의 걸림돌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신체검사가 있기 며칠 전 아버지는 군대 시절 같이 근무했던 소대장을 찾아갔다. 이십 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당시의 전우애가 남달랐는지 장군이 된 그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저녁도 하고 술도 한잔 걸쳤다. 헤어질 때 약간의 금전이 든 봉투를 아버지가 내밀었다. 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에게서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았는가, 하고 거절했다고 했다. 봉투를 내민 손이 아버지는 참 부끄러웠다고 훗날 이야기했다.

신체검사 당일, 시력 검사표를 다 외웠으므로 나는 걱정이 없었다. 다양하고도 정밀한 검사를 했다. 단체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드디어 시력검사 시간이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섰는데 순간 아찔해졌다. 내가 외운 검사표와는 다른 검사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동네 안경원의 시력 검사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었지만 사관학교 신체검사소의 것은 미국에서 만든 것이었다. 안과 검사를 담당하던 군의관은 시력 검사표에 나의 시력을 입력하고는 불합격이라는 붉은 도장을 꼭 찍었다. 나머지 검사는 다 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팬티 바람으로 최종 면접관 앞에 섰다. 최종 면접관은 두 명의 소령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를 훑어보더니 어, 저 친구가 그 친구군, 했다. 물론 둘만의 소곤소곤한 대화였지만 나에게에는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정말 해군사관학교에 오고 싶어?’

시력에서 불합격이었으므로 사실상 나는 불합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상관이셨던 그분의 힘이 느껴졌다. 내가 만약 ‘예’라고 대답한다면 합격을 시켜줄 것 같았다. 불과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여름날 학교 운동장을 혼자 돌던 일. 풀리지 않던 수학 기출 문제를 풀며 끄공대던 일. 시험을 치르던 날 아침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응원을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아버지의 옛 소대장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해병대 정신이 먼져였을까? 수년간 한술밥을 먹은 멀리서 찾아온 옛 소대원과의 정이 먼져였을까? 그도 아마 아버지를 만난 후로 고민을 했을 것이다. 두 최종판정관은 또 무슨 날벼락인가? 상관이 그들을 불러 나에게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하나의 불의한 합격을 위해 온갖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또한 내가 합격한다면 누군가는 그 꿈을 접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지극한 군인정신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두 판정관의 눈에도 이리저리 망설이는 눈빛이 느껴졌다. 그런 식으로는 사 년간의 사관학교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들이 나에게 내 이름 석자와 ‘불합격’을 복창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테니 이런 일은 네 인생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겨있었지만 답답했다. 지난 수년간 품어왔던 나의 꿈이 진해 앞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래도 나에게에는 왠지 뭔가 뿌듯함이 생겨나 있었다. 멀리 사관학교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해 대학에 입학했고 다행히도 2년간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장교가 될 수 있는 R.O.T.C.에 입단했

다. 시력 제한이 0.3이었으므로 신체검사에 합격했고 최전방의 육군 소대장으로 근무한 후 제대했다. 하얀 제복이 아닌 푸른 제복을 입었지만 당당했다.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하나뿐인 아들도 군에 입대했다. 입대하던 날 녀석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이 순간을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인용하며 아들을 보냈다. 제 엄마의 손을 놓고 연병장으로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러 번 예전의 아버지처럼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R.O.T.C 동기 중 장군이 된 친구도 있었고, 현역 부대장으로 근무하는 친구도 여럿 있어서 슬쩍 아들 얘기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특히나 아들을 걱정하는 아내를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더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가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신다. 너를 사관학교에 보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일들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신다. 또한 손자를 떠 올리시는 연로하신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다행히도 아들은 별 탈 없이 잘 적응했으며 멋진 군 생활을 잘 끝내고 얼마 전 제대를 했다. 가기 전에는 몸이 약해 걱정을 했는데 다녀온 뒤로는 팔뚝에 굵은 핏줄도 돌아오고 어깨도 단단해진 것 같아 보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 그리고 아들 모두 병역의 의무를 잘 마쳤다. 우연히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게 되었다. 삼대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집안에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신청했더니 병무청에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왔다.

만약 내가 그때 그분의 힘을 빌려 사관학교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내가 되어 있을까?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6조는 이렇게 전한다.

충의공(忠毅公) 산운(山雲)은 청렴 정직함이 비할 데 없었다. 광서수부(廣西帥府)에 정퇴(鄭宰)라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말을 잘하였다. 공(公)이 그에게 묻기를, “세상에서 장군이 되면 탐욕해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 역시 탐해도 되겠는가?” 하니, 정퇴가, “공은 마치 새롭고도 깨끗한 흰 도포 같은데, 한 점 먹에 더러워지면 끝내 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오래전 청렴을 끝없이 추구하던 성현들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끝없는 욕망을 추구한다. 근래에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볼 기회가 많다. 학력

이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퇴의 말처럼 한 점 먹에 더러워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본다. 목민심서는 백 년도 더 전에 다산 정약용에 의해 씌어 졌다. 그의 생각이 후대에 생생하게 돌을새김처럼 살아난다. 그의 청렴에 대한 가르침이 널리 번지기를 바란다. 나 또한 살아가며 하얀 도포에 한 점 먹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이름없는 가방

박상백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고단했던 취업준비생 시절을 끝내고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입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신용보증재단이다. 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곳이다.

신용보증재단의 합격통지를 받은 그 날 저녁, 아버지가 술을 한 잔 하자고 하신다. 평소에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던 아버지는 내가 공공기관에 취업하자 상당히 기뻐하셨다. 술을 연거푸 들이키시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던 중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

“너, 거기서 근무하면서 절대 돈 같은 건 받으면 안 된다!”

“네? 무슨 돈이요? 돈 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돈을 줘요?”

“아니다. 네가 하는 업무는 돈이 꼬일 수밖에 없어. 아버지 말 명심해라. 돈 줄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10원 한 장도 받으면 안 된다. 마음 단단히 가져라.”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다. 내가 맡게 될 업무의 무게를 알기에는 워낙 아는 게 없었고 사회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나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 나가서 실제 사업 여부 및 제출한 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조사를 끝나고 나오는 나에게 봉투를 주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게다가 봉투를 주는 방법도 정말 다양했다. 그냥 내놓고 주시면 거절할 걸 알고 계셨는지 인사를 하고 나가는 길에 손에 쥐어주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건 애교 수준이었다. 미비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이에 봉투를 끼워서 주는 사례는 일상다반사였고, 악수를 하면서 손에 현금을 바로 쥐어주는 분들도 많았다.

한번은 화장실 간 사이에 재킷 안주머니에 돈을 넣은 분도 계셨는데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돌아가서 돈을 돌려드린 적도 있었다. 돈을 안 받는다고 할 때 사장님들의 반응도 정말 다양했다. 불안해하시거나 미안하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 하나면서 화를 내

는 분도 계셨다.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다 거절을 했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정말 청렴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자만심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한참 자만심에 빠져 방심한 틈을 타서 발생하게 된다.

입사한지 3년째 되던 해의 무더운 여름에 사업장으로 심사를 하러 나갔다. 당시 방문했던 업체는 유명 패션 브랜드로부터 하청을 받아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죽가방과 가죽지갑을 만드는 곳이었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죽냄새와 본드 냄새가 진하게 났다. 사업장 안에는 남자 사장님과 사모님, 다른 직원 몇 명이 가죽을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부족했던 서류를 받고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 후 신용보증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장을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신다.

“잠시 만요. 대리님.”

“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돌아서는 나를 보면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쇼핑백을 하나 건네신다.

“별 건 아닌데 가져가세요. 그냥 막 쓰기에는 편할 겁니다.”

“네? 이게 뭔데요?”

쇼핑백 안을 보니 빨간색의 여자 가방이 보인다.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의 가방과 비슷하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그래도 비싸 보인다.

“사장님.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놓고 가겠습니다.”

“대리님. 이건 상품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쇼핑백 안에서 가방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사장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

“여기 보시면 상표가 없잖아요? 이건 안 붙인 게 아니고 못 붙인 거예요. 만들다가 살짝 불량이 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가죽값 때문에 버리긴 아깝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게 브랜드 제품인데 상품가치가 없다니요?”

“진짜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상표 없는 것들이 다 조금씩 불량이 나서 납품이 안 된 제품이에요.” 사장님이 손으로 가리킨 진열장에는 나에게 보여준 가방과 같이 브랜드마크가 붙지 않은 가방이 색 팔별로 놓여 있었다.

“이거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해요. 돈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가져가서 막 쓰시다가 흠집나면 버리면 돼요.”

사장님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던 나를 보며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도 슬쩍 말씀을 건네신다.

“결혼하셨어요? 집에 가져가시면 아내분이 좋아하겠네요. 이게 메고 다니기에도 적당하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날이 더워서 더위를 먹은 건지, 사업장에 가득한 본드 냄새에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보느라고 외출도 잘 못하는 아내가 생각 나서였는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들고 다니던 가방이 예쁘다고 말하던 아내의 말이 기억나서였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원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보며 연신 쇼핑백을 건네시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나도 모르게 쇼핑백을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는 가방 잘 쓰겠다는 말까지 하고 사업장을 나왔다.

사업장이 있는 지하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1층까지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져만 갔다. 계단을 올라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한여름 오후의 햇살은 뜨겁기도 하고 밝기도 했다. 그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 갈 자신이 없어졌다.

출입문 안쪽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입사 시험 볼 때의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인적성 검사 문제, 자기소개서의 내용, 면접의 질문 등등..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술을 따라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네가 하는 업무는 돈이 꼬일 수 밖에 없다..... 마음 단단히 가져라’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사업장 문 앞에 섰다. 크게 숨을 내쉬고 사업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 내외분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심사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차 만류하시는 사장님을 뒤로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사업장을 나온 후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눈이 부시게 밝았고 엄청나게 더웠지만 마음은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왔다. 그날 밤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해 밤에 편의점에 가서 맥주까지 사와서 마셨지만 거의 뜯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청렴기본강사 과정을 수료하여 사내강사로서 역할을 수행중이다.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교안을 만들다 보면 그때의 사건이 생각난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느낌이다. 돈은 잘 거절했으면서 가방은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때의 나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때 내가 그 가방을 받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을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한다. 어쩌면 그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본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수없이 가정을 해보면서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그때 그 순간 계단을 다시 내려간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이다.

커피 한잔

처음에는 식사를 함께하자고 했다. 팸투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된 직후였다. H사의 대표가 일 년 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며 레스토랑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어쩌다가 그 사업을 중간에 맡긴 했지만, 사업의 효과성도 의문이었고 H사의 일 처리도 영 맘에 들지 않았다. 정산서류도 미비한 점이 많아 몇 번을 보완하게 한 후 마감일 압박해서 준공 처리를 해주었다. 통장에 사업비가 입금되니 인사치레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식사 제의를 거절하자 차라도 한잔하자며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님과 식사나 커피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H사의 대표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커피는 내가 대접했다. 준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한잔 타서 건네주었다.

관광과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팸투어 사업을 맡았을 때는 ‘팸투어’의 뜻도 몰랐다. 사전을 찾아보고 전임자와 팀장에게서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서야 어렵듯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광이라는 것은 본인의 경비로 여행을 하는 것인데 팸투어는 우리 돈을 들어서 외국인을 공짜로 관광시켜주는 사업이었다.

관광사업은 골목 없는 공장에 비유되어 21세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내가 근무했던 기관이 그 선도에 있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팸투어 사업으로, 우리 기관의 부담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유력 인사를 초청해 한국 관광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많은 중국인을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서 해외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H사와는 수년째 용역계약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해에도 내가 업무를 받았을 때 절반은 완료된 상태였다. 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은 C 주무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연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사업 중에 석연치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섭외비였다. 우리 예산으로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 일체를 주는 외에 따로 섭외비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시장이나 고위 간부를 초청하기 위해 특정 단체에 섭외를 의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내에서 이동하고 숙박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고 효과도 크지 않아 내부 논의를 거쳐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다음 해에 폐지했다. H사에 비상이 걸렸다. 팸투어 사업을 부활시키려고 집요하게 찾아왔다. 내가 전

통차 한잔이라도 받아 마셨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커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않았기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작고, 국내 체재비 외에 섭외비나 중국 내 소요 경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업이 폐지되고 2년이 지나 팸투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원에서 팸투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부서에서 팸투어 사업을 폐지하자, 오랫동안 이 사업을 담당했던 나의 전임자 C 주무관이 자신의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획해서 다시 H사와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C 주무관과 H사의 비리를 조사하던 감사원에서 과거에 돌이 손 잡고 추진했던 사업 전체를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었다.

별도로 마련된 감사장에 한 달 내내 불러 나가 감사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했던 팸투어 사업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회계서류도 모두 제출했다. 전임자 C 주무관이 H사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렸고 금품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감사관은 나도 모든 걸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고 더구나 H사로부터 금품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다.

“커피 한 잔은 얻어 마셨을 거 아니요?”

“아닙니다. 커피 한 모금도 얻어 마신 적 없습니다.”

정말로 물 한 모금 얻어먹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도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감사관은 얼굴에 냉소를 띠었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한통속이면서 잡아떼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회계서류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과 근무상황부를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작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눈곱만큼도 걸릴 것이 없어서 마음은 편안했다. 일주일쯤 지나고부터 감사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둔 것이다. 반면 나도 모르고 팀장과 과장도 모르고 있던 C 주무관의 행적이 드러났다. 그는 수십 번이나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경비 중 일부는 H사에서 제공했고 더러는 휴가나 조퇴를 받지 않고 가기도 했다. 섭외비나 중국 내 영수증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가짜 영수증이 상당수 나왔다. 결국 그는 파면이라는 최악의 징계에 더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

흔히 사과 상자에 담긴 돈뭉치만 금품으로 생각하지만, 커피 한 잔도 금품이 되어 우리의 옷을 더럽

힐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마지못해 얻어 마시는 커피 한잔, 음료수 한 병이 족쇄가 되어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용역 업체로부터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면 내가 팸투어 사업을 폐지하자고 부서장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커피 한잔을 얻어 마셨다면 감사관 앞에서 고개를 푹푹이 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전통차 한 잔 얻어먹는 대신 내가 커피믹스 한잔 타주길 참 잘했다.

명예, 그리고 보람

정학수

오늘도 나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 더욱 질어만 가는 푸른 숲길을 걷는다. 완만한 길은 조금 속도를 내고 가파른 언덕을 만났을 때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무리 지어 핀 들꽃을 눈에 담고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35년간 몸담아 온 공직생활로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이 퇴직 후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산을 오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산을 오르며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 공직생활의 여정을 반추해 본다.

내가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도시화·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5년도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내가 부모님 눈에 성실하게 보였을 테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나의 성격을 잘 아시기에, 아들이 공무원이 되면 딱 맞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곧 나의 꿈이 되었던 것이다.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가뭄에 콩나듯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보수가 높은 사기업체를 선호하여 그 길을 선택하였다. 그 당시 임금대비를 보더라도 사기업체의 보수가 공무원보다 최소한 두세 배가 되는 실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돈보다는 명예와 봉사를 우선한다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의 보수가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었고,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호 도의 뒷자리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그때 나의 공무원 보수는 8급 3호봉에 분기별 보너스와 상·하반기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154,500원에 불과했다. 저축은 고사하고 한 달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야 하는 알뜰한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신규자 공무원 교육 연수에서 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상기했다.

“돈을 벌기 위해 공직을 택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책을 덮고 나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오. 사업가는 돈을 먹고 살고,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고,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더 이상 직업에 대해 흔들림이 없을 7년 차 되던 해의 일이다. 자녀들의 유치원비에 남들 다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비 등 사교육도 시켜야 하고, 친가와 처가 대소사를 챙기다 보니, 아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살림을 해도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 항목은 더 늘어나는 실정을 아는 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던 무렵이었다.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근무했는데, 수질측정 장비인 분광 광도기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

하면서 받지 말아야 할 리베이트를 40만 원씩이나 받는 실수를 저질렀다. 박봉에 늘 긴장하고 빠듯하게 한 달을 버려가는 가정 살림을 떠올리며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며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납품업자가 돌아가자마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신앙의 양심까지 저버렸다는 자책감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육체적 아픔은 치료하면 되지만, 부정한 일을 저질러 내 양심을 거슬렀다는 후회에서 오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납품업자를 불러서 받은 돈 전부를 되돌려 주었다. 그는, 내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돌아갔다. 양심의 가책으로 나를 옥죄고 있던 사슬을 풀고 나니 그 해방감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잠시나마 40만 원으로 나의 양심을 저버려 부끄러움과 괴로움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 경험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노라는 다짐과 공직자로서 옳게 판단하고 옳게 살아가리라는 신념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 유지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확립되면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공직생활도 성실히 이어갈 수 있었다. 내가 꿈꾸는 깨끗한 양심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물질의 유혹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가진 것을 족히 여기는 자족하는 정신’이야말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하고 인생을 여유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믿었다.

사실 공직생활 중 청탁과 부정행위로 불명예스럽게 그 길을 저버린 주위 사람들이 있다. 내가 속했던 ○○시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동료직원들이 손 꼽아 약 10% 이상이 된다.

공직생활 17년 차 되던 해 하수처리장 계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또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하수처리장마다 고도 처리공법이 도입되면서 기존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둘 중 한 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두 회사가 각자 주장하는 공법으로 간이 파이롯트 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안정되고 좋은 방류수 수질을 얻을 수 있는 공법의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회사가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내가 없는 사이에 100만 원이나 되는 돈뭉치를 내 서

랍에 넣고 갔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그 즉시 전화를 걸었다.

“대가성의 돈은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당장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세요.”하니, “그걸 가지고 무얼 그러십니까? 나중에 잘만 되면 그것의 몇십 배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지금 바로 와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소.”라고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내 의지를 알았는지,

“지금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장소에 와 있고 또 지금 바로 출장 차 중국을 다녀와야 하니 나흘 후에 다시 돌아와 꼭 회수해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돈뭉치를 가지고 있는 4일간은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혹시 그사이에 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문제라도 삼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접을 수가 없었다. 뉴스에서 공무원의 비리 소식이라도 나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나에게 돈을 주고 갔던 사업자가 원망스럽고 돈뭉치가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드디어 사업자가 와서 돈을 회수해 가니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며칠간 떠안았던 불편하고 괴로웠던 일을 보상이라도 받듯 사업자에게 따끔한 말을 해 주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지만 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시 나의 봉급은 약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업자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고서 망설임 없이 바로 돌려주려고 판단한 것은 10년 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느슨함이 생길까 봐 늘 나를 돌아보고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항상 청렴하게 시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하다 보니,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주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명예롭다는 청백봉사상 대상에 추천되었다.

어느 날 실사 팀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동장 32호봉이면 23평 아파트가 아니라 32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하기에, “저라고 왜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 혼자 벌어서 자녀 2명을 대

학까지 보내는 것조차 그리 쉽지 않습니다.”하니

“역시 청백봉사상을 받을 사람은 무언가 다르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 시대 황희 정승과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이어받은 청백봉사상을 받은 것은 내가 속한 ○○시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의 명예도 높일 수 있어 큰 보람으로 남는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본분에 충실했음을 인정받았다는 보람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한다.’던 교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하다.

1년 전 공무원 정년퇴직을 한 나는 내 삶을 정산해 보았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마치고, 지금도 23평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 한 대와 연금뿐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시 공직생활로 돌아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돈이 아닌 명예를 택하리라는 생각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기에, 나의 삶에 후회는 없다.

산 정상을 돌아 내려오며, 오를 때 보지 못했던 풀들의 색깔과 다양한 나무들의 조화로운 풍경을 본다. 산길을 오르고 내려오듯 삶의 굽이진 여정을 돌아보며, 수많은 직업 중에 정직을 최우선 하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깨끗하게 마무리했다는 자긍심으로 발걸음이 가볍다.

데일리(Daily) 청렴

이민송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딸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이제 갓 7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이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학 4년을 마치고, 오랜 취업준비의 여정을 지나 행원(行員; 은행원)이 되었다. 은행에 입사한 지 어느덧 9년 차에 접어든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은행원이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법한 경험이며, 부정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정직하게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한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은행원의 하루는 꽤나 길다. 출근과 동시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내 작은 명패가 세워진 자리에 앉는 것으로 시작한다. 직원 모두가 모이면 서로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고, 9시가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파이팅을 한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고객들에게 애정과 존중 가득한 말투가 배어나도록 미리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내 명패가 세워진 작은 자리에서, 오늘 하루 나를 찾아오는 모든 고객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감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

은행원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정겨운 사람, 따뜻한 사람, 평범한 사람, 차가운 사람, 바쁘고 다급한 사람, 그리고 아주 가끔, 절차를 거스르고 개인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혹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가볍게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세상 착한 사람들, 배려심 깊은 사람들, 나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객인 이 은행 업무 중에도 일부 개인의 욕심을 위한 크고 작은 부정청탁이 존재한다.

여느 날과 같이 하루의 업무가 끝나가던 오후 3시 30분, 매월 25일 오전 시간에만 금융업무를 보던 한 고객이 급하게 지점을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번 달은 매번 오시던 날짜보다 훨씬 일찍 방문하셨네요?”

평상시와 다른 날짜, 늦은 시간 방문에도 그저 반가워 살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 행원님.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 앞으로 예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다 큰 딸이라 바빠서 내가 대신 왔네요. 딸 앞으로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고객님,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와 따님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나는 예금 통장 신규개설 업무의 매뉴얼에 따라 고객에게 요청했다.

“아 이걸 어쩐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 우리 딸 신분증만 가져왔어. 한두 번 보는 사이도 아니고 매달 보는데, 일단 만들어줘. 내가 다음 달에 가져다줄게.”

사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많다. 이자 납부를 하러 왔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달라, 바로 뽑아서 주겠다는 등 방문이 잦은 고객일수록 처치가 더 곤란하다. 직원에게는 다 같은 고객님들이지만, 고객님들 중 일부는 은행 내에서 특권을 행사하려는 분들도 있고, 절차상 누락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당연히 배려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

오늘 방문한 이 고객님의 경우는 ‘실명법 위반’으로서 나와 고객, 양자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기에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고, 고객님은 내 자리 뒤에 앉아있던 책임자를 응시했다. 자연스레 내 눈은 책임자에게 향했고, 그는 작은 손을 입에 모아 입모양만으로 내게 의사를 전달했다.

‘그냥 해드려.’

물론 신규 예금 통장 발급은 어렵지 않지만, 나는 발급하지 않았다. 분명히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개설해준다면 은행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해주어야 할 전례가 될거라 생각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행해지면 처음 방문하는 일반 고객과 행원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청렴하지 못한 일 처리는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 순간 판단했다. 그래서,

“고객님, 거둬 말씀드리지만, 통장 개설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죄송한 마음을 최대한 표정과 말투에 담아 말씀드렸다.

“오 행원,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융통성이 없네. 내가 한두 번 오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은행에 통장이 몇 개인데, 정말 섭섭하게 한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니까 전부 해지 해줘요.”

고객님은 예금을 해지한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시재 마감이 끝난 늦은 오후, 퇴근 시간이 임박해 책임자가 나를 호출했다. 종전에 있었던 일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오 행원, 정말 고객님 말대로 융통성이 없네.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주신다고 했으며. 어쩌다 한 번 온 고객도 아니고, 자주 오는 고객인데, 우리 지점 실적도 좀 생각했어야지. 저분 예금 통장 다른 지점으로 옮기면, 우리 실적도 확 줄어든다고. 실적은 우리 성과급여로 이어진다는 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책임자는 호되게 몰아쳤지만, 청렴한 업무에 대한 나의 소신을 말하였다.

“책임자님, 안면이 있을수록 더 지켜야죠. 우리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고객분들도 저희와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해진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주 빈 분이러 저도 지금은 마음 아프지만, 다시 오시면 공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기본 종계 통장을 개설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화를 내며 떠나실 줄은 몰랐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쉬움이 더 컸는지 다시 내게 말했다.

“오 행원, 아무튼 그분 통장 해지하면서 빠져나간 실적까지 책임질 각오해.”

일주일이 지나 사건을 잊을 때쯤, 본사 감사실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오 행원님, 안녕하세요. 감사실입니다. 혹시 000 고객님 예금업무 담당하셨지요?”

감사실에서 나를 꾸짖으려나 싶어 순간 긴장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이었고, 000 고객님 저희 지점에서 개설하셨던 모든 예금계좌를 지난주에 해지하셨어요.”

“그렇군요. 다름이 아니고, 그때 일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려 해요.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없어서 신규발급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규통장을 만들어드리지 못했어요. 혹시 고객님께서 화가 많이 나서서 민원을 넣으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다음 날 또 다른 지점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따님 명의로 예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나온 날이어서 발급해준 담당 직원이 처벌 받게 생겼네요. 저희는 사실관계 조사차 오 행원님에게 전화드린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나니, 뒤에서 나를 보던 책임자가 물었다.

“오 행원, 무슨 일이에요?”

나는 통화내용 그대로 말씀드렸고, 말을 다 들은 책임자가 말했다.

“아,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오 행원 잘했네.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 사리분별 못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미안해. 이번에 크게 배웠으니,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다른 행원들도 앞으로 매뉴얼대로 공정하게 업무합시다. 책임자인 내 판단오류 인정하고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점장으로부터 호출이 있어 지점장실에 들어갔다.

“오 행원, 지난번 그 일로 지점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고맙네. 사람을 대하는 게 행원의 일이다 보니 참 그래. 우리는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청렴하게 일해야 하거든. 일의 성과든 돈이든 욕심이 앞서면 안 돼. 아무튼, 고생했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이후로 우리 지점은 지점 자체적으로 청렴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 직원이 청렴한 업무수행성과 건수를 게시판에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모은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 분기별 개별 보너스(전통시장 상품권)를 받고 있다. 나는 그해 첫 청렴 보너스를 받았다.

순간의 판단이 청렴과 부정부패 사이를 오고 간다. 청탁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모님 세대의 공직자들과 민간기업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분명 서로 주고받는 관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편의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청탁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국민은 서로 조심하면서 정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 나의 경험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은행원인 나는 오늘도 애매하고 부정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직하게 나의 작은 창구를 지킨다. 부정청탁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옳고 그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 누구보다 강한 마음으로 더 청렴하게 일해야 한다는 지점장님의 말씀을 새기며, 내 작은 아기의 손을 어루만지며 약속한다.

‘아가야, 엄마가 노력할게.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 더 투명하고, 더 청렴할 수 있도록.’

양심 내시경

변재영

지난 가을이다. 밭치에 사는 딸네미가 사과 한 소쿠리를 들고 왔다. 청송 주왕산 단풍놀이에 갔다가 돌아올 때 노변에 있는 직거래장터에서 샀다고 했다. 그런데 맛도 보기 전에 속았다고 씩씩거렸다. 알이 굵고 때깔도 고운지라 한 상자를 차에 실었는데 집에 와서 끄집어내어보니 밑에는 작고 못생긴 사과들로 채워져 있더라는 것이다.

황당하게 당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엇그제다.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구입한 ‘카우보이 벨트’가 광고에서 본 물건과는 달리 시중에 파는 싸구려 제품이 와서 속을 끓이고 있던 중이었다. 부녀가 나란히 ‘속박이’를 당했다는 사실에 슬며시 부아가 치밀었다. 속박이란 보이는 바깥쪽만 멀쩡한 물건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그보다 작거나 부실한 물건을 두는 일을 일컫는다. 결과 속이 다른 속박이, 문득 추억 소환의 시동을 걸었다.

내 유년시절, 아버지는 대구능금의 고향, 반야월에서 대를 이어 사과 농사를 지었다. 대구하면 사과요, 사과하면 대구라고 할 만큼 명성이 높았던 대구능금도 이제 열대야를 피해 문경으로 청송으로 북상한지 오래다. 70년대만 해도 금호강을 낀 우리 동네는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았지만 부농이라면 과수원 하나쯤은 갖고 있었다. 가요계의 거목 패티 김이 부른 ‘능금꽃 피는 고향’의 발원지로 봄이면 들녘은 새하얀 사과꽃 일색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아름드리 사과나무 한 그루면 쌀농사 서마지기 소출과 맞먹는다며 아버지는 사과 농사에 정성을 쏟았다.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내고, 소독을 하고, 적과를 해주며 사철 과수원에 땅거미처럼 붙어살았다. 부지런한 아버지의 땀을 양분으로 실하게 열매를 키운 과목은 가을이면 소녀의 볼 같은 미인능금을 주렁주렁 매달았다.

동네에서 제일가는 명품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 아버지의 몫이라면 그 사과를 판매하는 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사과 수확이 시작되면 마을 앞 국도변에는 띄엄띄엄 노점이 열린다. 말하자면 직판장인 셈이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허름한 천막아래에 사과 껍질을 널어놓는다. 그 긴 행렬 끝에는 내 어머니도 있다. 매년 속에 종일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호객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공판장에 신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金を 받을 수 있어 노점은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진다. 다행이라면 영남의 관문으로 통하는 국도는 사철 차량들로 붐비었다.

오후 한나절,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떨이를 외친다. 그런데 어머니는 절반이나 남아있다. 어떤 날은 해질녘까지 팔아도 재고가 남았다. 하루 이틀도 아닌지라. 내 머리 속에는 물음표 하나가 따리를 틀었다. 왜 손님들은 유독 어머니의 사과만 외면하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도 동네에서 우리 사과가 최상품이라고 거품을 물었는데.....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우연이었다.

“무슨 여자가 저토록 우매할까. 혼자 고매한 척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라도 한담?”

“누가 아니래, 길거리 장사치 주제에 양심이나 의리만 찾다가는 밥 굶기 딱 십상이지. 하긴 우리가 뭐 썩은 감자라도 넣었남? 저리도 융통성이 없으니 자신만 힘들지”

설마 했는데 우리 집 좌판을 힐끔거리는 걸로 보아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다. 내 어머니가 왜?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사에 깔끔한 성격이라 차림새가 남루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는 분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입담이 부족해서일까. 천만에. 고전소설을 많이 읽어 재치 있는 농담으로 우리를 언제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답은 없고 머리만 복잡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신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있었다. 팔다 남은 사과가 마음에 걸렸으리라.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늘 하는 일인데”

“손님들은 왜 우리 집 사과만 외면할까요?”

“글썩다. 어미의 장사 수완이 부족한 탓이겠지”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두어 해 후다. 해를 거듭할수록 손님들이 하나둘 어머니의 좌판으로 몰리더니 급기야 종일 팔아야할 물건이 한나절이면 동이 났다. 돈보다 정직을 택한 승리였다. 끝내 어머니는 침묵했지만 손님의 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돈독이 오르면 약아지기 마련이다. 뜨내기손님이라고 고객을 일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인물이 좋은 사과를 위로 올리고 속에는 작고 못난 사과를 넣는 술수를 부렸던 것이다. 농심을 믿고 확인하지 않는 선량한 고객의 양심을 악용한 것이다. 소떡이로 줄 사과를 최상품으로 팔아치웠으니 돈주머니야 두둑하겠지만 여행길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 심정이 어떨겠는가. 믿던 도끼에 찍힌 발등은 훨씬 더 아리고 아프다.

어머니인들 그 알량한 수법을 왜 몰랐겠는가. 하지만 목전의 이익에 흔들릴 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끝집은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퍼져 판로로 이어졌던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우리 형제들이 양심 불량을 할 때만은 꼭 때로 다스리던 속내를 그제야 읽을 수 있었다. 내가 글로벌엔 청렴을 어머

니는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고 계셨다. 몸으로 때우는 직업의 숭고함과 낮은 자세로 투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미학을 불립문자로 남기신 어머니, 지금은 별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

너럭했던 농촌 인심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 무논을 뒤진 듯 뽕 문은 고무신을 신고 방금 잡아왔다고 호언장담하는 할머니의 미꾸라지도 알고 보면 양식이고, 조상 제사상에 올리려고 남이 아닌 당숙모의 가게에서 믿고 산 고사리도 쓰고 보면 중국산이라고 한다. 이뿐이라. 가짜 고춧가루, 가짜 달걀, 가짜 참깨, 심지어는 가짜 의사에 짝퉁 미인까지.....

이처럼 우리 사회는 속박이로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근간에는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무일푼의 건달이가 일천억 대의 재산가로 행세하며 유명인사를 상대로 116억 2천만 원의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으로 속박이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아빠 찬스에 엄마 찬스까지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을 쌓거나 없는 표창장을 위조해 남의 기회를 빼앗고도 아닌 척, 정당한 척 우기는 척병환자들 역시 속박이의 다름 아닐 것이다. 양심을 버린 술수로 따낸 감투는 도둑질한 물건과 무엇이 다르랴. 생각만 해도 구린내가 난다.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은 나 역시 가식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언제 한번 당당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어릴 때부터 참는 게 미덕으로 여기고 속을 숨긴 채 살아온 근성 때문이리라.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하는 만능 부하로 살았다. 그렇다고 속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딘가 모르게 억눌리는 감정, 그것이 양심과 청렴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다는 진리를 은발이 성성해진 지금에야 읽는다.

양심을 저버리는 속박이, 분명 남을 속이는 일로 범죄이고 부정부패다. 불신을 낳는 이 문화는 온라인 세상일수록 더욱 활개를 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녹아 있지만 누구도 부패라고 여기지 않는다. 서로 속이고 속아주는 게 미덕인양 말이다. 이쯤 되니 약삭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직한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어머니처럼 멍청한 사람으로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이젠 시류에 따라 청렴도 진화했다. 공금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공직자가 나랏돈을 떼먹는 부조리는 옛말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청탁 금지 역시 과거의 청렴이 되었다. 지금은 법에 앞서 양심선언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직에의 용기, 정직의 능력과 행복을 덕목으로 하는 사고의 변화가 곧 청렴의 척도가 된 것이다. 정직은 마음의 헌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상대의 귀와 눈에

거슬리는 농담과 장난까지도 갑질이 될 수 있고, 성희롱이 될 수 있고, 부정부패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붉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몸쓸 병이라도 걸렸는지 수시로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내시경을 들이댄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켜야 할 양심은 살피지 않는다.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 양심을 헌 신짚처럼 버리고도 마음에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요즘이다. 소화기관을 들여다보듯, 이제 양심의 내시경으로 자신의 민낯을 들여다볼 일이다. 양심을 좀먹는 비양심의 암세포는 과감하게 도려내어야 한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질 수 있다면, 돈 앞에 당당할 수 있다면 ‘속박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폭염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 듯,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사회에도 청량한 바람 한줄기 불어오기를 소망해본다.

02

시 분야

대상

물에 관한 명상

최우수상

반딧불이
지붕론

우수상

하늘 청소부
비누를 위하여
유리 천장

장려상

물망초(부제: 나를 잊지 말아주요)
당신이 모르는 당신
우물
어름꾼

대 상

물에 관한 명상

이상운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도 않는다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도 돌아서 간다

평생을 제 키보다 긴 팔로
나무를 안으며 돌부리를 다듬으며 물고기를 부르고
새들의 발을 씻어준다

온 몸으로 대지를 적신다

바다 안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어쩌다 몸에 티끌이 묻거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하늘에 자신을 비추며
스스로를 정확시킨다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채찍질한다

사람도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

아무도 보거나 듣는 이 없어도
말하는 이 없어도
어쩌면 셈하는 이 없어도

날마다 진실의 거울 앞에 서서 몸과 마음을 씻는 사람

시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 우수 상

반딧불이

석지영

반딧불이는
사방이 칠흑에 잠겨서
어둠이 밤 한복판에 따리를 틀 때
찬 바람이
공원의 나무며 어린 풀들을
칼날 상처로 훑고 가는 것을 본다.

반딧불이는
세상이 아직 우기에 젖어
녹진한 안개가 돌담 이끼로 자랄 때
다습한 공기가
아이들의 그네며 미끄럼틀을
핏빛 녹으로 덮어가는 것을
또 본다.

반딧불이는
바람 느껴 질어 별조차 없는 이런 밤에
홀로 콩깍지를 켜 든다.
외로운 불은 또 다른 불을 불러 빛이 되고
그 빛 어둠을 흩어 신새벽 여명(黎明)을 밝힌다.

반딧불 외등 아래서
순한 세상 마을 사람들은
덧난 녹을 닦고 젖은 땅을 말려
청렴(清廉)한 세상을 올곧게 키운다.
세상이 환하다.

최 우수 상

지붕론

김형식

왼쪽도 오른쪽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너는
어디 한 곳 치켜세우지 않는다

주머니라는 게 너는 없어서

간밤의 과식으로
옥상들이 종일 배수구를 게워낼 때조차,
힘 한번 들이지 않고 장마를 벗어놓는다

무엇 하나 움켜쥔 적 없는
너의 손아귀엔

얼룩조차 머물 시간이 없다

그 부지런한 비움의 자세가
처마 끝,
동그랗게 부풀어오르는
빛의 결정을 완성시키는 거겠지

머리 위에 지붕을 엮듯 하나 둘
거리 위의 행인들이
우산을 펼쳐 드는 시간

읽다 만 책을 뒤집어두고 떠난 모양으로
곳곳에 너는 널브러져 있다

사람들에게 너는

더는 읽히지 않는 서적, 아무도
들춰보지 않아
먼지만 쌓여 가는 문장

검은 우산을 들고

검은 우산을 들고
불투명한 외투를 여미며

지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맹인처럼 걷는 밤

눈먼 도시의 달빛만이 점자처럼 너를 읽어내려 간다

검은 우산을 들고
불투명한 외투를 여미며

지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맹인처럼 걷는 밤

눈먼 도시의 달빛만이 점자처럼 너를 읽어내려 간다

우수상

하늘 청소부

김효빈

하늘 청소부

저 앞선 이가 남긴 시커먼 발자국
또 뒤 따르는 이가 물들인 회색빛의 하늘
그 하늘을 닦는 이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고개를 젓히고 올려다보는 하늘은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다
보기엔 뒤척임조차 없는 그 광활한 하늘에는,
저 머나먼 하늘 속에는,
내 별들이 산다

맑고 깨끗하게 살라던 구름들의 말에
내딛는 발걸음에는 구름이 한 점, 한 점 소복이 내려앉고
바라보는 하늘에는 정의의 맹세로 가득찬 별들이 빛을 낸다

오로지 푸른 빛의 하늘이 우리를 비추듯
새파란 마음들이 나를 떠미는 이곳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은 나를 기다린다

점차 제 색을 찾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 번 발을 내딛는다
저 머나먼 하늘 속에는 내 정의들이 산다

우 수 상

비누를 위하여

이동택

손이 닿기 전 비누는
제 살이 얼마나 깎여 나갈지
알지 못하고

심장이 조일 때마다 푸른 거품을 물고
때가 타기 무섭게
춤을 추듯
뱀의 혀물들을 사르르 벗겨낸다

작아지는 일에 능숙한 그는
구태여 몸집을 불릴 필요가 없다
온갖 더러움을 마주하며
녹아 사라지는 일에 몰두한 뒤에야
비로소 말을 수 있다는
파아란 빛깔의 향기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씻겨 나가는 것들을 들여다 볼 때마다
열이 오른 비누는
끝내 자신의 몸을 딱 하니 열어젖힐 참이다

아아 온몸을 던져야 피어난다는 연꽃처럼
제한 몸 바스려진 꽃잎들이
뜨거운 노래를 부른다
눈이 부시도록 파란 새벽을 기다리며
비누를 위하여

우수상

유리 천장

문지연

눈부시게 아름답고 화려하다 생각해서 부러웠다
감히 오를 수 없는 높이라 생각해서 부러웠다
내가 흉내 낼 수 없는 영롱함이라 생각해서 부러웠다
반짝반짝 빛나듯 당당하다 생각해서 부러웠다

거짓과 위선의 화려함을 따라 올라가려 했다
부정과 더러움이 치솟는 높이를 따라 올라가려 했다
깨끗한 척하는 것도 모르고 함께 올라가려 했다
거짓 방패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숨어 올라가려 했다

눈부시게 투명함이 너의 속을 보여줘서 맘을 바꿨다
오를 수 없는 높이라고 누가 그랬냐고 맘을 바꿨다
더럽고 짙짙한 너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맘을 바꿨다
너의 반짝임은 얇은 방패임을 알고 맘을 바꿨다

껍데기만 투명한 너를 나는 당당하게 쏘아 볼 것이다
달지 않아도 내 맘속 파란 돌을 힘껏 던져 볼 것이다
영롱한 척하는 너를 흠탕물로 휘저어 볼 것이다
반짝이는 얇은 방패를 내 짧은 창으로 찢러 볼 것이다

깨 부서진 너의 조각들이 솔직함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그 반짝임들 위에 당당히 서 있을 것이다

장려상

물망초 (부제 : 나를 잊지 말아주오)

김민석

바람의 간지럼에도
구름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드리운 안개에 가려 이름 모를 꽃이 되어도

내가 견뎌낸 시간과 아픔
피워낼 그 날 그대에게 정직할 테니,
지지 않고 늘 피어있을 테니,

세상의 미끼 뒤로하고
나를 잊지 말아주오

나는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기에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고 노래이기에

그대라는 봄이 나를 부르면

정갈하게 피워낸다
깨끗하게 피워낸다

찰나의 흔들림이 가져온 재물은
불 위에 흩뿌려진 눈과 같기에

그대가 나를 돌아볼 때

정갈하게 피어난다
깨끗하게 피어난다

장려상

당신이 모르는 당신

김상운

이 길은 첫눈조차 거무튀튀한 진흙으로 남는 길
유난히 부끄러움에 예민한 당신은 이곳에서
상처받을 일도 속 쓰릴 일도 많았다

옳은 말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입에 걸려 넘어지는 길
어금니가 드러난 일그러진 얼굴들을
당신은 잊지 못한다
잊을 수가 없다

넘어질수록 누운 듯 편안해지는 기묘한 길에서
그림자에 온 몸 삼켜진 살아 있는 검은 무덤이 도사리는 길에서
두 발로 걷는 당신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다

당신 역시 그림자가 없겠는가
다만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을 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 없다 하여
모든 걸 내던지겠는가
당신은 그저 묵묵히 걸을 따름이다

심술 난 이들이 진흙에 몸 비비며 당신 바짓단을 잡는다
기어코 넘어뜨리려는 손들에 비틀거리면서도 걷는 당신을
땀과 눈물이 맑게 닦는다

당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유리인 줄 알고 당신을 깨트리려 하지만

당신은 호수
파문이 일어도 흩어지지 않는 세계

언제까지고 그럴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짓눌린 채
담담히 걸어가는 당신 발자국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알까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나침반으로 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까

아니
당신은 모른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떨림을 간직한 당신의 밤에
유난히 많은 별들이 반짝인다는 걸
당신은 알 수 없듯이

우물

김완수

사람들이 도시로 빨빨이 떠난 부락
허름히 기우는 집 몇 채만
주인들 발소리를 더듬는데
공동 우물이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우물은 입이 닫혔으나
나는 아직 소리가 남은 우물가에 머무른다

사람들은 우물을 당산나무같이 지켰을 것이다
퍼도 퍼도 넘쳐흘렀을 두레박엔
둘러서서 나누던 웃음소리와
욕심을 함께 빨아 내던 시간이
찰랑거리는 물처럼 담겨 있었으리라
하늘도 등그렇게 담아냈을 우물
구름은 멧쩍어 냉큼 비켜났을 테고

우물은 곳곳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욕심의 옷에 쓸린 삶일수록 반긴다
인내의 뚜껑을 열자
우물 속에 하늘이 떠오르고
하늘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 먹장구름이 낄 때마다
거울 보듯 들여다봤을 우물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물을 길어 올렸겠다
두레박을 끌어 올리면
별빛 같은 꿈들도 건질 것 같다

바람결에 들린 잿빛 소문 따라 떠난 삶
우물은 마을을 떠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꼭 돌아오리라
샘물같이 맑은 약속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전에
우물은 다 비쳐 보이는 속을 가다듬을 것이고
사람들이 쉬리처럼 모여드는 날
우물은 안식(安息)의 물을 가득 퍼 줄 것이다

장려상

어름꾼

양동진

뱃줄에 몸을 맡겨 허공을 움켜쥐고
공중에 가상의 무게를 잡아
천칭처럼 나풀거린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듯 활개를 치며
앞만 보고 가는 앓은뱅이 전진
밀을 보지마라, 시선에게 당부하지만
눈은 눈치가 요요하다 결눈질로 아래를 훑는다.
공기의 부력으로 떠있는 듯 출렁거리는 녹밭줄
광대는 합죽선을 흔들며 허공잡이를 하고
어긋나기로 디딘 발은 아슬아슬
한 치의 오차에 등 돌린 추락
가야 할 길은 코앞, 줄 위에선 먼 길

검은 그림자 은밀한 부정의 손
팽팽한 삭도 아래 선택의 땀 주르르
내면속의 갈등은 낙하하는 고뇌의 파편들
청탁의 바람은 흔들리는 소름으로 파고들고
군중 속 여론이 떠받든
저 외로운 줄타기.

03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분야

대상

올바른 마음

최우수상

연줄을 끊으세요.

일급수달

우수상

당신이 버려야만 하는 것

반드시 온다

당신의 푸른 마음으로

장려상

나의 선물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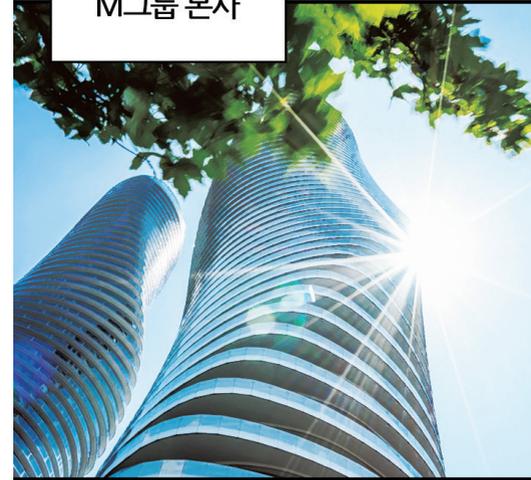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대상

올바른 마음

홍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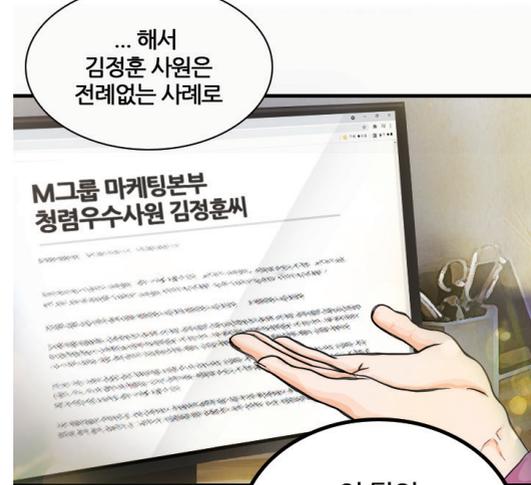
M그룹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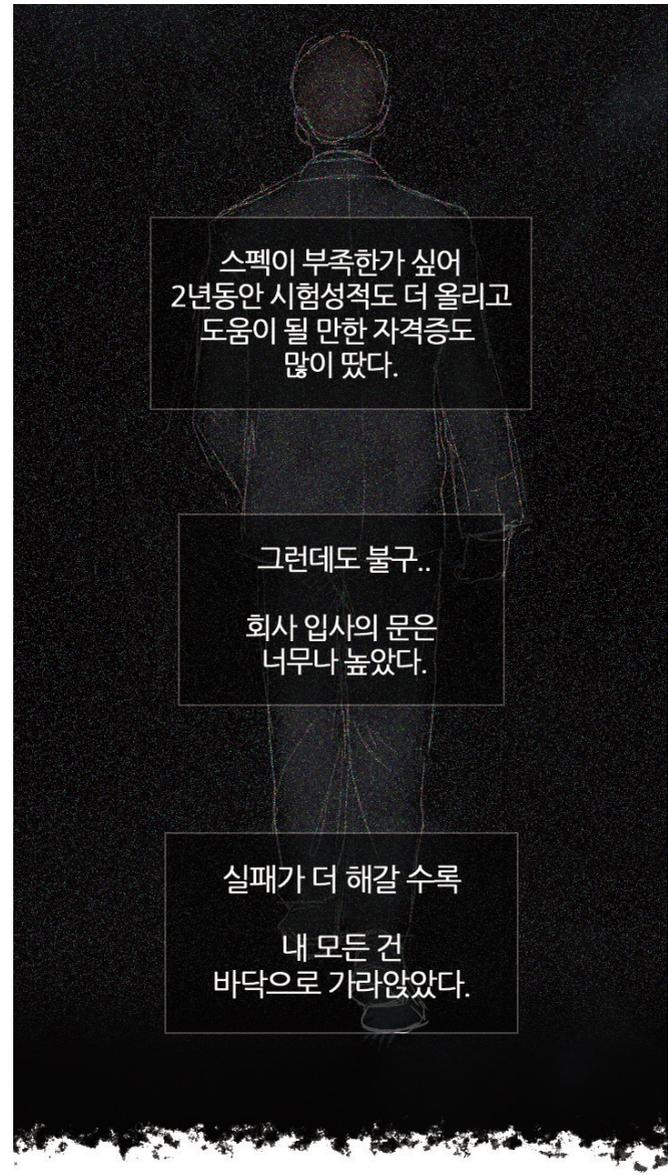
... 해서
김정훈 사원은
전례없는 사례로

M그룹 마케팅본부
청렴우수사원 김정훈씨

이 달의
청렴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때 M그룹
2차 인·적성검사 합격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



나는 힘을 얻고
3차(최종) 면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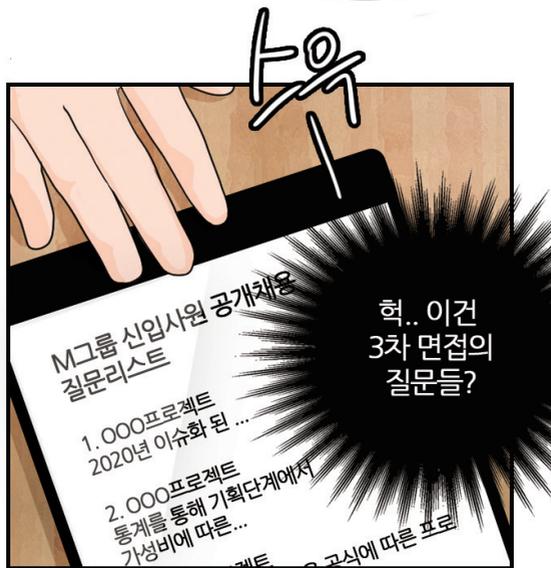


그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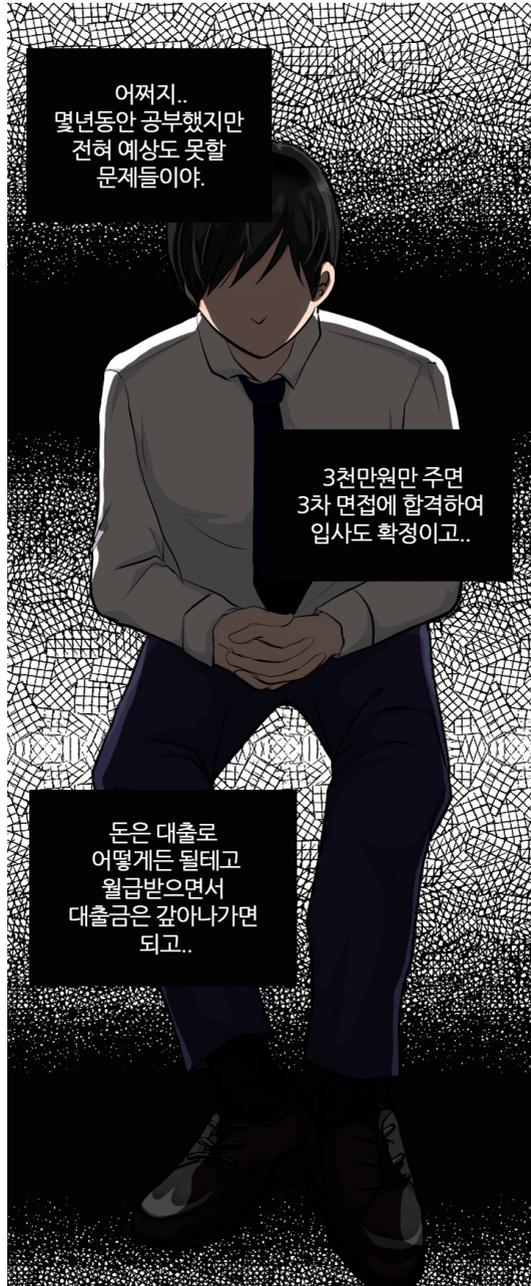


M그룹 채용관련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만 빌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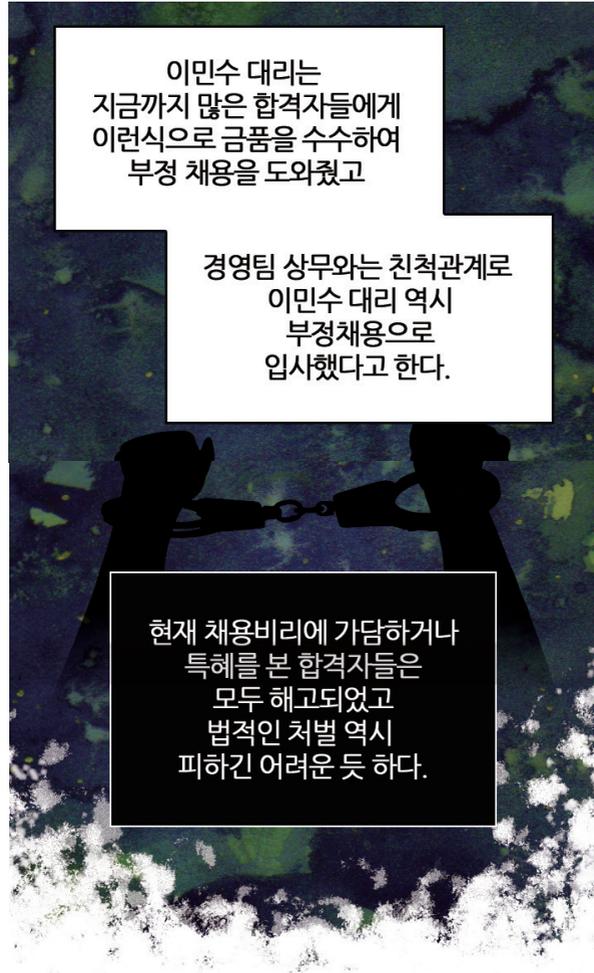












이민수 대리는
지금까지 많은 합격자들에게
이런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부정 채용을 도와줬고

경영팀 상무와는 친척관계로
이민수 대리 역시
부정채용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현재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특혜를 본 합격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법적인 처벌 역시
피하긴 어려운 듯 하다.



가끔 우리 삶에서는
놓치기 힘든 유혹들이
마음을 흔든다.

신입사원
김정훈씨 입니다.

김정훈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오오!
그 유명한~~

반가워요~

잘 부탁
드려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것이 기회라고
착각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이란 걸
알면서도 결국
선택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올바르고 진실된 길로
걷는 것이다.



나도 그리고
당신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행위에 대해
접수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 www.clean.go.kr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최우수상

연줄을
끊으세요

이해결



이제 연(緣)줄을 끊으세요.

혈연, 학연, 지연은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액막이연(鶯)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액막이연(鶯)을 날리고 연(鶯)줄을 끊어 액운을 멀리 날려 보냈습니다.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등 사회 속 부정부패의 연(緣)줄을 끊고 청렴한 나라로 나아갑시다.

최 우수 상

일급수달

고병곤

일급수달 이야기

이 강에서 제일 가는 현자를 찾는다면,

모두가 망설이지 않고 거북이 카페를 가르쳐 줄 겁니다.



고민이 있는 자들은 모두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의 주인공이 찾아왔을까요?



오랜만이네, 수달. 자네는 얼마전에 취직도 했는데,

그새 무슨 고민이 생긴 건가? 일이 재미없나?

아니요, 회사 일은 제 적성에 잘 맞아요.

지금 일이 정말 좋기에 더더욱 고민이에요...

사연인 즉슨..



알겠네. 먼저 들어가게.



동료 비버 씨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비버 씨는 일도 잘해. 댐 공사 실력은 언제 봐도 멋져!









어르신
그랬던 것처럼,

비버 씨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몰라요.



우리 때는
혼자만의 외침으로
불공정함을 이기기
힘들었을지라도

자네들은 도움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손길이 많아졌다네.

법과 제도가
억울한 자를 돕고,

많은 이가 옳은 길로
함께 가길 원한다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네의 용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공정하고 청렴한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라네.



자, 이제 마음을 정했는감?

END.

우 수 상

당신이 버려야만 하는 것

피꼬리(엄다현, 이연건)



버려야 할 것은
작은 것도
못생긴 것도 아닌,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한 과일을 방지하면
주변까지 부패하게 됩니다.
정렴한 사회를 위해
당신의 부패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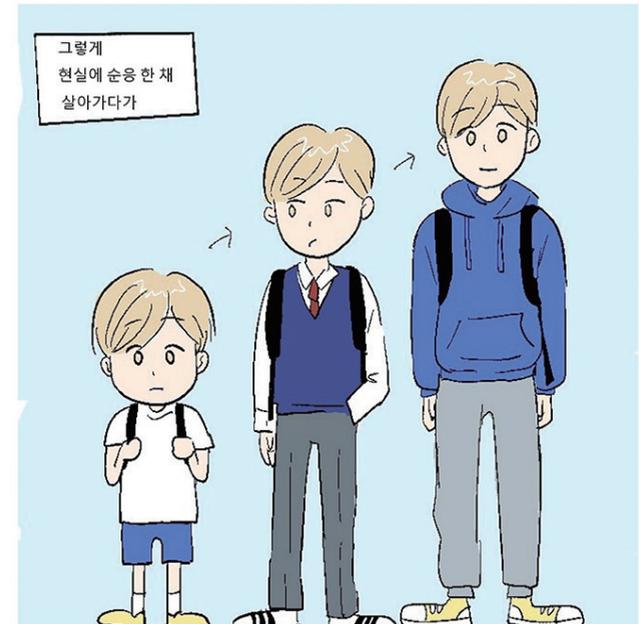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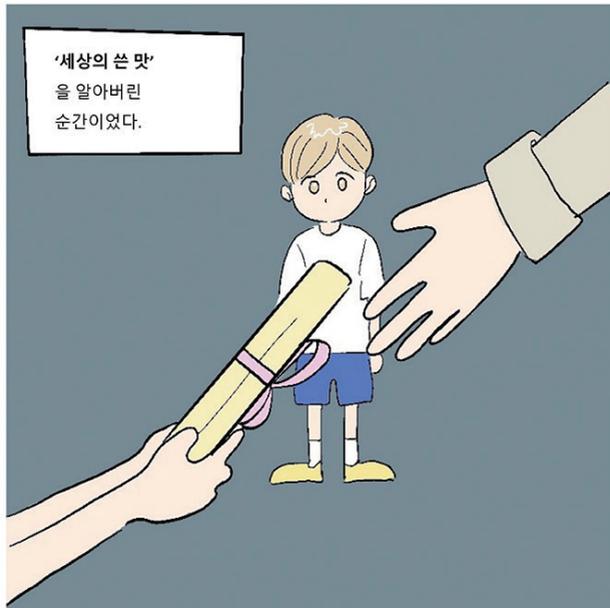
우수상

반드시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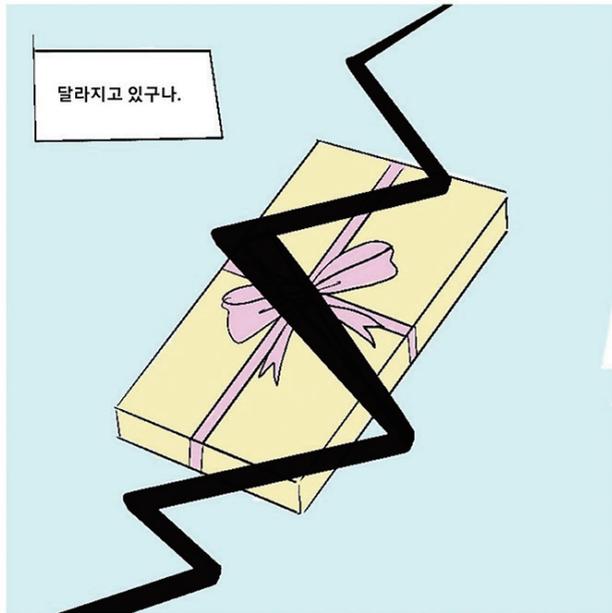
윤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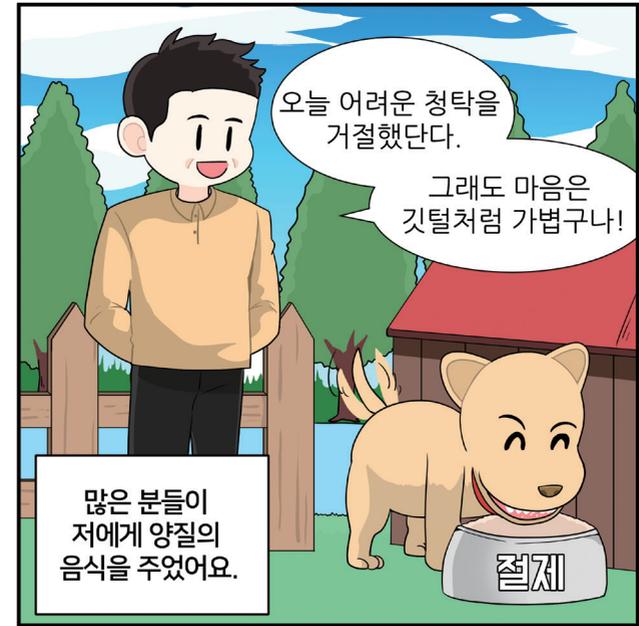


우수상

당신의
푸른 마음으로

김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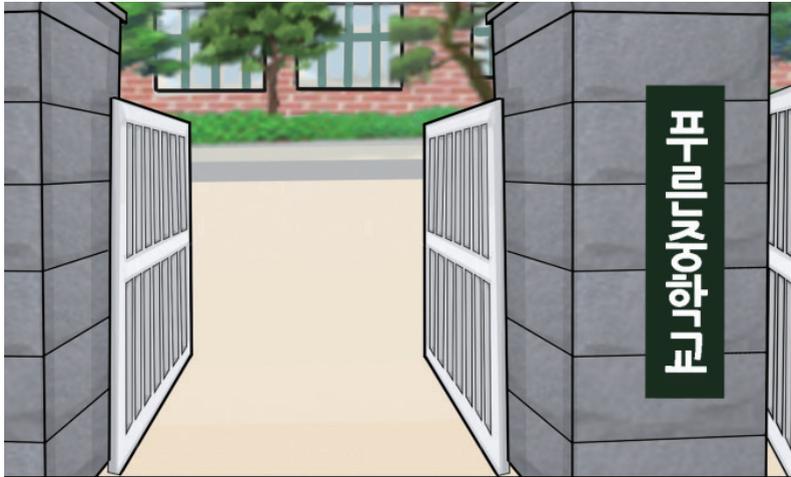


장려상

나의 선물

김현정





이름 : 서교육
 나이 : 39세
 담당 : 계약, 지출 업무 등





안녕하세요,
별별수련원에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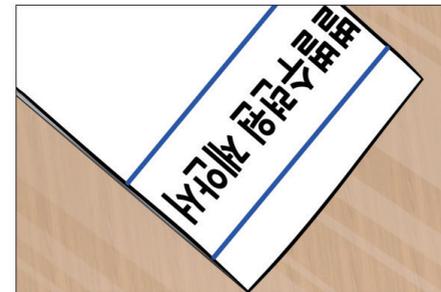
계약
담당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담당인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저희 수련원 제안서
좀 전달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저희 수련원은
신축 된 지 얼마되지
않아 건물 상태도
깨끗하고,

계약 실적도
적고 안전점검
관련 자료도
없고...

아이들이
수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푸른중학교
1학년도 수련 활동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시죠.

그럼 다른 수련회
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곧 추석인데, 학교 앞
정육점에 주무관님
이름으로 한우 세트
맞춰 놓겠습니다.
퇴근길에 찾아가시지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련활동 계약은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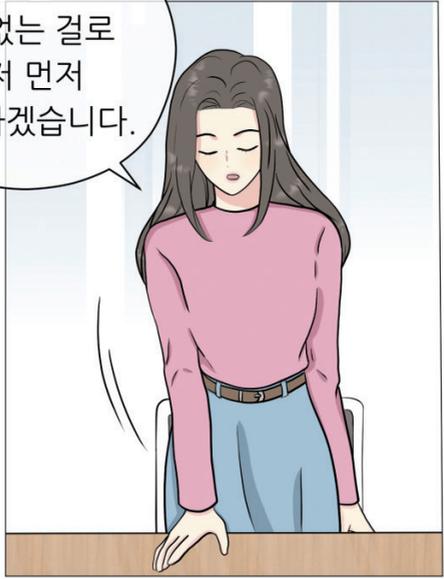
1단계는
규격입찰이고
2단계는
가격입찰로
이루어집니다.



허걱

만약 저희 학교와
함께하고자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걸로
알고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몇 개월 후



다음은 별별수련원 화재 사고 관련 속보입니다.







청렴한 당신은 안전한 세상을
선물한 것 입니다.

청렴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장려상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인정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청렴은 청렴이 아닙니다.

장려상

골목길

이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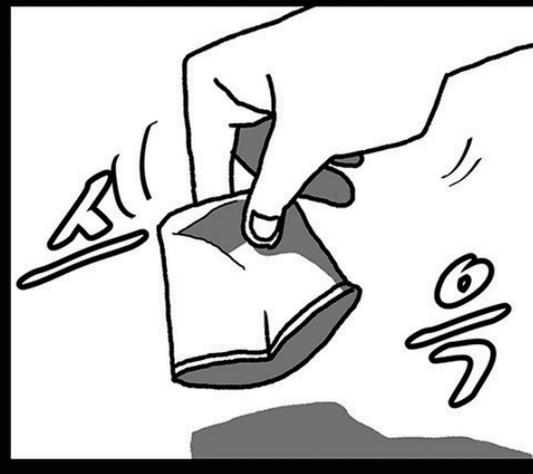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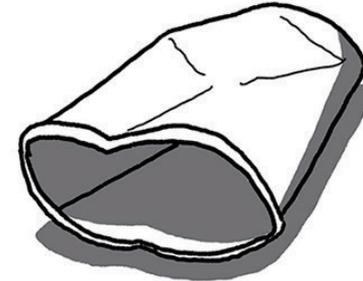
재건축을 앞둔 우리 동네에는
방치된지 너무 오래되어
쓰레기투성이가 된 골목이 있다.



나는 그 골목을 볼 때마다,



옛 친구가 생각난다.





놀이공원에서도...

어서 들어와!

다른사람들도 다들
줄 대신 서주고있어!



괜찮아!
줄 뒤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라는 질문에,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알잖아.



그리고 혹시 알아?
다른 사람들도 언젠간 알아줄지.

답답한 녀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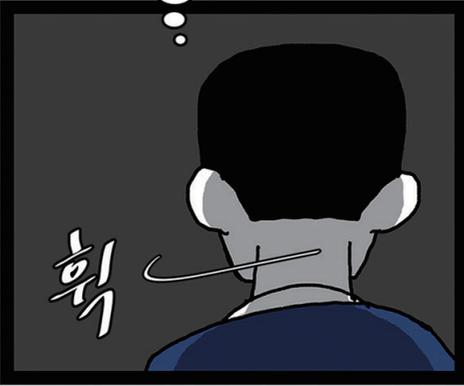
그 친구가 이 골목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두 팔 걷고
치우기 시작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아니니까...





다음 날
까르
까르



뭐야? 이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저것 좀 보라.
고등학생들이 담배나 피우고...
에휴...



우리 아들은
저런애들이랑 어울리면
안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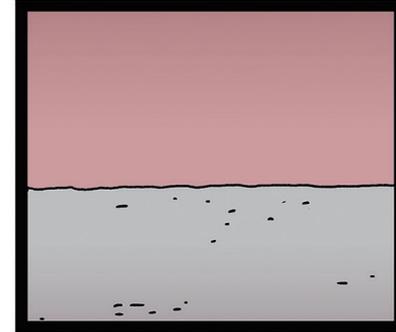
어..?

아...

아빠..?

아들..?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던 골목이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마을의 골칫덩이가 되자



골목길은 자연스럽게
동네 학생들의 일탈의 장소가 되었다.

골목길은 자연스럽게
동네 학생들의 일탈의 장소가 되었다.



동네 사람들과 나의 무관심이
골목길을 그렇게 만들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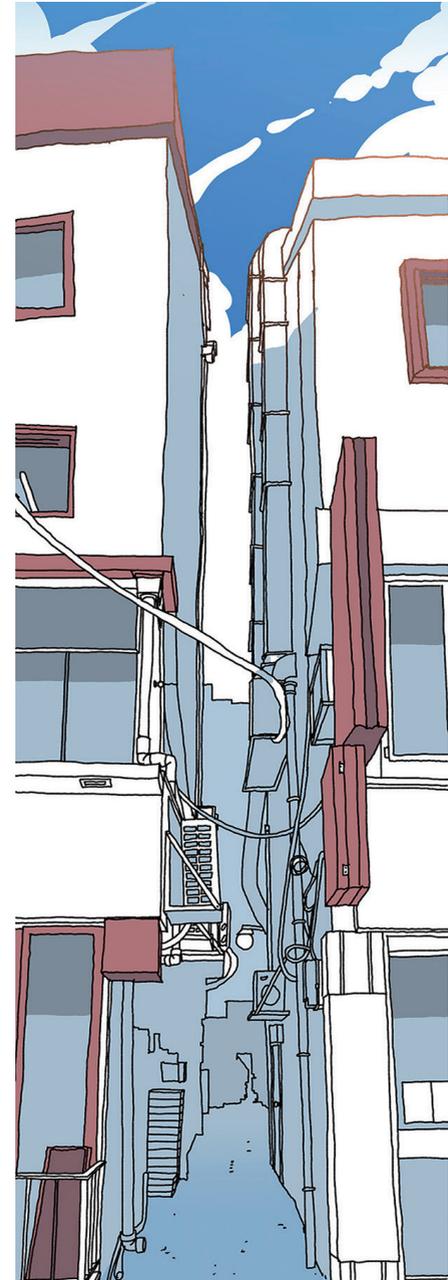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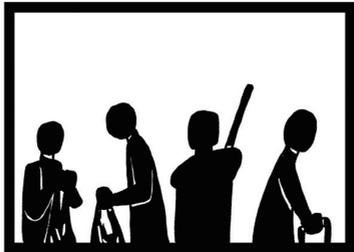
동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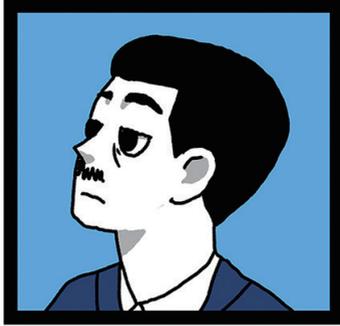
하지만 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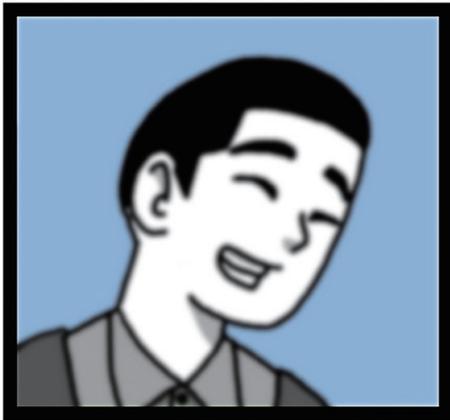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렇게
청소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골목은
일주일도 안 돼서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골목을 보고
나는 그제서야



그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장려상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신두희



04

영상 분야

대상

선배님이 수상해요

최우수상

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오피스 청렴

우수상

청렴도시

선인장

청렴의 시각으로 보는 속담의 재해석

장려상

청렴한세상 우리가 만듭니다

청렴도

청렴을 외치다

청렴올래카메라

대상

선배님이 수상해요

한국국제협력단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acrc0229)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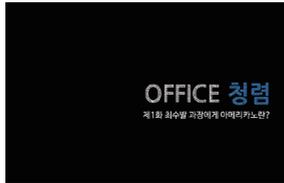
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오피스 청렴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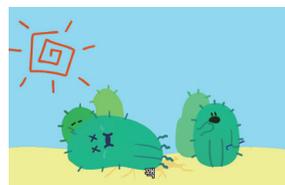
청렴도시

| 경기도 부천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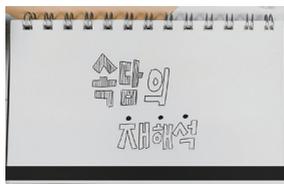
선인장

| 3010(유지은, 차영석)



청렴의 시각으로 보는 속담의 재해석

| 경상남도교육청 CHOILEE 팀



장려상

청렴한세상 우리가 만듭니다

| 임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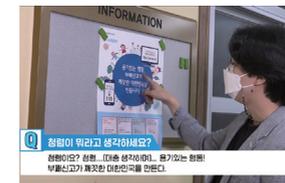
청렴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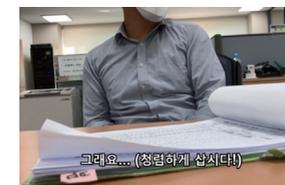
청렴을 외치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외침



청렴몰래카메라

| 인천직접자사 청렴마피아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acrc0229)



05

노래 분야

대상

내 마음속의 cctv

최우수상

달라질까?

CLEAN DAY

우수상

청렴 백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

장려상

We can make Love

No Tha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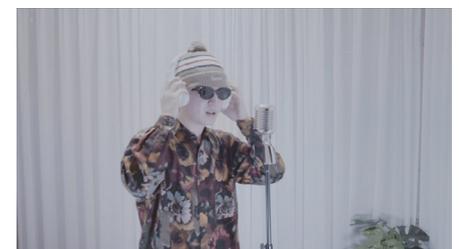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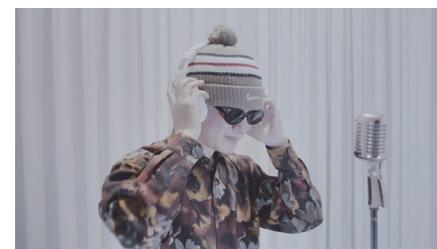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송

break

대상

내 마음속의 CCTV

박하선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acrc0229)

최우수상

달라질까?

| (주)SR 수서승무센터(최백규)



CLEAN DAY

| joon & taylor(채영준, 오태석)



우수상

청렴 백신

| 정지현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

| 김현대



가장 보통의 청렴이야기

| 하유나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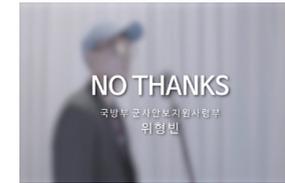
We can make Love

| 전의진



No Thanks

|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위형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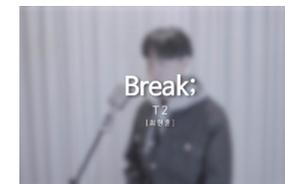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송

| 경기도교육청(최성해, 정준남)



break

| T2(최현훈)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acrc0229)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발행인

정운정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디자인

(주)쌍굿

청렴연수원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수곡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www.edu.acrc.go.kr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www.integritycontents.kr

본 수상작품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